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호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i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94호

2007. 12. 8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정영수 ■ 편집인 김용, 박영상
■ 주소 (361-712)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35 청주교대 본관 327호
■ TEL 043-299-0696, 0809 ■ FAX 043-299-0697 ■ E-mail kssea1@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차기 정부 대통령의 교육공약

정 영 수 (본회 회장, 충북대)

I. 공약 : 변화에 대한 기대

변화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고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선진 교육 사회에 대한 꿈이 없는 대통령의 공약은 공허한 정치적 표어에 불과하다.

교육은 정치적 실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념 투쟁의 장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공약이 국민의 허황된 꿈을 부풀리는 것도 온당치 않다. 교육복지 국가 실현의 의지가 없는 대통령의 공약,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고질적인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도 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마이신, 아편과 같

학회 소식지 주요내용

1. 주론

- 차기 정부 대통령의 교육공약 - 정영수(회장, 충북대)

2. 학회 활동 회고

- 내 생의 가장 큰 보람 - 김명환(경북대)
- 한국교육행정학의 국제적 리더십 - 주삼환(충남대)
- 인쇄소에서 집필을(간사 회고)-정일한(대구가톨릭대)
- 간사 일지 -권현정(경북대)

3. 학회 활동 현황과 전망

- 학술행사 유감-천세영(충남대)
- 학회지 발전을 위한 제언-허병기(교원대)
- 교육행정학 연구의 미래 발전 방향-박선형(조선대)
- 교육행정학 전문서 발간의 성과와 미래-이윤식(인천대)

- 국제교류의 성과와 미래-고전(대구교대)

- 학회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현황과 전망-김병주(영남대)
- 학회원 관리 및 홈페이지 활성화-정금현(교육인적자원부 연구원)

4. 학회에 바란다

- 학회의 다변화-박상완(부산교대)
- 대학원생의 참여 확대를 통한 학회의 활성화-엄준용(고려대 대학원)
- 교육전문직의 바람-김병규(부산교육청)
- 현직 교사들의 참여기회 확대-이정화(죽전중)

5. 학회 활동

6. 공지사항

은 임시 미봉적 처방 효과를 꾀하려는 자세와 정신으로는 결코 우리나라 교육을 개혁하고, 선진화 할 수 없다. 더 이상 대통령의 공약이 위선으로 포장된 거짓 공약이 되지 않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은 교육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공약이 대중의 지지와 표를 의식하여 교육의 문제를 호도하고, 초점을 흐리게 한 나머지, 분열과 대립을 유발시킨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예컨대, 평준화 정책과 소위 3불(不)정책 등을 쟁점화하고, 표층적 담론과 대중적 논쟁을 자극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도리어 문제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Ⅱ. 대통령의 기본 시각: 제3의 패러다임

지금까지 변화를 위한 수많은 교육개혁안이 난무했다. 그러나 ‘왜 우리 교육의 현장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는가?’ 우선, 차기 대통령은 이 문제에 맞서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교육이, 외형적 화려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대통령하기를 바란다.

둘째로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국가 교육체제의 이념에 적합한 것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국가 이념과 목적에 따라 공교육 체제가 움직여지고 있는가? 우리 교육체제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오늘날의 교육논쟁의 저변에 잠재되어 있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논쟁을 초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종래의 관점을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 또 다른 비판이 요구된다. 비판은 또 다른 새로운 비판과 도전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원동력은 바로 이 같은 변증법적 비판의 수용력이라 할 수 있다. 실체(reality)는 보수와 진보적 시각에 따라 양분되는 것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적 시각은 실체를 보는 양립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 이상 보수와 진보 논쟁이 교육 그 자체의 본질을 왜곡하는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대통령이 시도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은 시장경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화를 촉발시키는 원동력이며, 지켜가야 할 핵심 가치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유발하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냄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 시장경제를 외면한 개혁은 자생적인 개혁을 멈추게 한다. 다만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정당한 원칙아래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실질적 진보는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자유로운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한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Ⅲ.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

자율과 경쟁의 틀 구축

세계 각국은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강국으로 나아가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는 국민의 비뚤어진 교육열을 바로잡아야 한다. 뜨거운 교육열을 지식강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 동력으로 살려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의 낙후성을 시급히 탈피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인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와 간섭의 틀을 깨고, 자율과 경쟁이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창의적 노력을 가능케 하도록 자율을 행사하고 경쟁의 마당을 펼칠 수 있는 고등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대학의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명실상부한 다양화와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개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질적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 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경쟁력 극대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경쟁을 붙이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교육은 경쟁 속에서 자기 성취감을 높이고,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기도 전에 타인과의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험을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점차 정직성의 가치가 소홀히 여겨지고 창조성은 무뎈진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기주의, 경쟁주의, 출세주의를 학습하며 삶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찾는 데 실패하는 과정을 겪는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쟁의 의미를 가르치고 학습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은 시장과는 달리 경쟁만이 진정한 의미의 발전과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권위와 자율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을 초월하여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구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사회가 온통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첫째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초점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화 인터넷 시대의 효율적 수업 운영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학교단위로 경쟁력 있는 수업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공교육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수업 체제 구축의 성공 사례를 적극 보급하고 교사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즉 공사립 물론하고 대안학교 학원 강좌 등 우수 교육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교교육에서 ‘좋은 수업’의 모델을 마련하고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정상교육과정에서 수업을 제대로 학습하기만 하면’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입시제도의 자율적 정착

학생 수요자의 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한, 또 우리나라 대학 제도가 유럽형의 이념을 좇는 제도라고 볼 수 없는 한, 대학의 입시제도는 통제되거나 규제될 필요가 없다. 대학의 질적 통제는 대학 자체의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선발의 방식은 대학 스스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대학이 본고사를 시행한다고 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본고사를 얼마나 타당성 있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본고사를 치를 준비가 되어있는가,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대표할 수 있는 시험 내용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마다 신뢰로운 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할 것이다.

교직의 새로운 환경 창출

교원정책은 교원으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교원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잘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직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는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적 성취를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원이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원들이 성취의 기회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 의사결정을 위한 권한의 분권화, 수업 프로그램 계획의 자율권, 단위학교에서의 예산과 인사 권한의 부여, 새로운 재정의 원천 확보 등이 요구된다.

학력의 새로운 표준 설정

변화하는 시대는 학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학력의 개념은 시대 사회의 속성에 따라 변화를 겪어 왔다. 학력의 표준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표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되어왔다. 이제 학력의 개념은 단순히 지적인 학업성취 수준에 국한해 왔던 협의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래 협의의 개념에 붙잡혀 있던 학교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각에서 학력을 바라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새 학력의 개념은 탄탄한 기초를 토대로 해야 한다. 개인의 자아 발달 측면과 사회화 측면, 그리고 실천의 측면이 다함께 반영된 균형 있는 발달을 지향하는 것이다. 새로운 학력의 개념은 다중지능의 이해와 개발에 초점을 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다중지능은 신체운동, 자기성찰, 인간친화, 논리 수학, 언어, 음악, 공간, 자연친화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학교교육에서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능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지식경영,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 수업체제

교사의 경우, 수업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일로 분주하게 쫓기고 있어 결과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대한 직무 도전감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학력신장의 걸림돌로서 작용된다. 수업의 현장 학급에서는 기초학력 부진아의 학습결손을 메우는 일에 실패하고, 수준별 지도의 효과는 회의적이다. 학생의 의욕과 의지,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정부의 퍼붓기 식 재정 지원 등은 도리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지 못하고 자생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사교육에 몰두한 나머지, 정규 수업시간에는 관심이 없고 졸고 있는 학생들, 사교육에 학력 신장을 맡기는 학생과 학부모, 제3의 보충수업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의 문제는 또 다른 학력신장의 한계를 말해준다. 학교장은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경영조직을 재구조화해야 하고,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업체제를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종래의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은 변화되어야 한다.

창의와 혁신을 위한 교육 마인드 경영

마인드 경영이란, 인간의 심성과 개인의 잠재능력 극대화에 초점을 둔 경영을 의미한다. 인간의 심성 가운데 정직은 최상의 덕목이다. 정직은 깊은 사려와 통찰을 가져다주며 정의와 사랑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진정한 저력과 노하우는 정직한 삶이 그 원천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직은 공신력을 회복시키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정직한 지도력은 힘이 있다. 결국 정직한 지도력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마인드 경영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경영을 가능케 하는 마인드 경영의 성패는 교육력에 달려있다.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시대의 대통령은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고 미래지향형 네트워크(holic network)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집단성원의 의식을 세계화와 개방화를 향하여 지역세계화 시대의 사고방식을 확산시켜나가는 시대적 역사적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국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차기 대통령의 교육비전과 지도력이 요구된다.

비교육적 공해와 무질서 추방, 웰빙 교육 실천

현대사회의 교육정책 이념 가운데 포함시켜야 할 이념은 첫째로 웰빙 시대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적 무질서와 공해를 추방하는 것이다. 학생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 내 무질서와 비교육적 공해를 추방하는 것은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생활에서 즐거운 학교생활과 자유로운 지적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갖 비교육적 공해와 무질서를 추방하는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

취지에 적합한 정직한 제도의 운영

공약의 실천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덕목이 있다. 즉 정직한 제도의 운영이다. 편법 없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대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는 정책은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시간과 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하고, 일단 제도가 마련되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정직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교원성과급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교원평가제도가 마련되면 제도마련의 취지대로 능력 계발과 준비를 유도하는 평가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능력고사가 대입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적 기능에 그치지 말고, 학력을 제대로 측정하는 평가제도 고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단, 교육정책수단과 제도가 마련되면 그 취지대로 정직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한국교육 발전의 걸림돌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교육 거버넌스의 문제를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협업체제를 재정립하고, 한국교육 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세워야 한다. 한국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 교육체제와 지방의 교육체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의 지방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자체적으로 교육 활성화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 지방 모두 자체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뿐 만 아니라, 혁신방법론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IV. 결론 : 교육적 모델로서의 대통령

우리는 지금까지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대통령, 교육적 모델이 되어 국민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닮고 싶은 표준이 될 만한,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을 갖지 못했다. 학교교육은 그러한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했다. 이제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희망한다. 왜 존경받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대통령은 교육적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국민의 교육적 모델이 된다. 교육적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모습 자체가 교육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 교육적 행태가 미치는 영향이 국민 전반에 파급되며, 대통령의 모습 그 자체가 삶의 문화를 결정짓고 한국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대통령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직한 행동을 준거로 삼아, 국민은 자신 있게 자녀와 학생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차세대 지도자들은 국

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차기 대통령은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국민교육을 고민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의 정의(正義)를 뿌리 내리고, 교육의 본질이 되살아나도록 하는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정직한 교육적 모델의 상징으로서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한다.



‡ 축 당선 ‡

한국교육행정학회 제36대 부회장(제37대 회장)
신재철(전남대학교)



| 학회활동회고 |

내생의 가장 큰 보람

김 명 한 (제17대 회장, 경북대 명예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창립한지 금년에 4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1985년에서 '87년까지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회고담을 쓰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벌써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창립기념행사를 갖게 되고 보니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금번 행사는 한국교육행정학회 전 회원은 물론, 전·현직 임원들과 유관기관들이 동참하여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그 어느 학술대회 보다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학회장을 맡게 된 시기가 1985년 12월에서 '87년 12월(2년)까지였으며, 당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본 학회를 창설하시고 초대회장을 지내신 강길수 박사님과 2대와 3대 회장을 역임하시며, 당시 불모지라도 같았던 한국교육행정학 연구에 밑거름 역할을 해주신 고 백현기 박사와 고 김종철 박사님을 위시하여, 교육행정학의 이론과 실재를 접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김영식 전 문교부장관님과, 전임회장단이신 이중, 김영돈, 왕기향, 신극범, 배종근, 윤형원, 김운태,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교수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조언과 협력의 덕분으로 한국교육행정학연구회 회장이란 영예스럽고도 어려운 직책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음을 저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보람이요, 광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임기 중 학술대회는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개최한 학술대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대회는 제 73차 학술대회였는데, 주제는 “2000년대의 한국교육과 학교장의 역할”이었으며, 당시 본 학회 회원과 대구, 경북지역 각급학교 교장선생님 약 800여명이 경북대학교 대강당에 모여서 함께 참여 하였으며, 그때 참여했던 많은 교장선생님들에게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위상을 들어내고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문교부학술진흥과에 자주 접촉하면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한 일들이 필름처럼 머리를 스쳐갑니다.

끝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계속 발전하여 우리나라 교육행정학의 학문발전은 물론 이론과 실재를 접목시키는데 더욱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을 기원하면서 이만 회고담을 줄입니다.



| 학회활동회고 |

한국교육행정학의 국제적 리더십

주 삼 환 (제27대 회장, 충남대 명예교수)

학회에 특별한 기여도 못하고 98년 부회장이 되었다. 부회장으로서 98년 10월 18일 일본 규슈대학에서 열리는 한·일교육행정학공동세미나에 참석해보니 우리 한국 측의 양해도 없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표가 참석하여 발표를 하고 있어 일종의 아시아교육행정학세미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전체 교육행정학회 일부분의 행사로 마지막 날에 열려 참석자도 적고 일본 측에서 별로 이 한·일교육행정학공동세미나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도 받았다. 그리고 더욱 기분 나쁜 것은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일’ 세미나를 ‘아시아’ 세미나로 일방적으로 확대시킨 것이었다. 아마 그때 일본 측에서는 어디서 재정지원을 좀 많이 받은 모양이었다. 그때 나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교육행정학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강하게 품게 되었다.

99년 회장이 되어 교육행정학에 관한 한 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일본에게 단순히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심정이었다. 그래서 99년의 한·일교육행정학공동세미나를 그야말로 국제세미나의 흥내라도 내고 싶은 욕심을 부리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학술대회를 회장의 중점사항으로 생각하고 국제학술위원장으로 세종대 임천순 교수를 모시고 위원으로 곽영우, 남만순, 박남기, 최영표, 김성열, 신현석, 임용순을 모시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국제학술대회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결정이 5,6월까지도 나지 않아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최종적으로는 국제학술위원장에게 회장이 사비라도 2천만원을 댈 테니 추진하라고 했었다. 다행히 학술대회 직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7백만원의 지원이 나오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전교육감 등 몇 교육감, 그리고 우리 회원으로 총장을 하시는 분들이 1백만원, 50만원 씩 도와주고 특히 신현석 위원이 근무하던 한남대학에서 장소, 버스, 직원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약 2천만원의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래서 제6회 한·일교육행정학공동세미나는 99년 9. 17. 한남대학교에서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제 (School-Based Management)’ 라는 주제 하에 이 분야의 세계적 대가인 Brien Caldwell(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하여 미국 Thomas Penland, 홍콩 Ng Ho Ming, 한국 Seung-yul Kim, 일본 Toyokazu Urano의 5개국 대표의 발표와 5명의 토론이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는 임천순 교수의 사회로 성공리에 치러졌다. 호주와 미국, 홍콩의 대표는 위원장의 노력으로 각 나라 주한대사와 주제 분야의 권위자의 추천

을 받아 선정되었었다. 당시 참석했던 회원들은 기억나겠지만 홍콩 대표가 오는 도중에 중간에 태풍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여 토론자인 충남대 천세영 교수가 하루 저녁 내 발표 준비를 하여 대타로 발표 도하고 토론도 하는 영어 실력과 순발력을 발휘하였는데 그렇게 좋은 논문을 그때까지 읽은 적이 없다고 그 논문을 평하였다. 홍콩 대표는 세미나가 끝난 후에 도착하여 Korea House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고궁을 안내하고 각종 수당도 다 지급하였다. 물론 Caldwell 교수도 연구기관 방문 등 약간의 관광 안내까지 하였고, 외국인 참석자들에게 한남대의 버스로 부여 관광까지 제공하였다.

당시까지 모학회인 한국교육학회에서도 국제세미나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국제대회를 먼저 개최하는 영광을 우리가 가져서인지 우리학회 창설자 1세대 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원로 학자들께서 참석하시어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한 기억이 난다. 무엇보다 세미나장을 빛내고 의미 있게 한 사람은 당시 부회장이었던 서울대 이종재 교수이다. 그 짧은 시간에 영어로 된 세미나 발표물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번역본을 제공하고 서울대의 교육행정연수원 연수생 교장선생님들을 버스 2대로 세미나장에 참석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그 큰 세미나 장이 딱 찼었고 세미나 자료가 독났었던 행사가 되었다. 그 이후로 SBM은 많은 사람들의 연구 주제와 논문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통역 없이 국제세미나를 거창하게 개최하게 되니 영어에 불편을 느낀 일본 회장은 몹시 심기가 편치 못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는 지금 형태의 한·일 두 나라 대회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우리가 한·일교육행정학공동세미나를 통하여 일본에게서 배울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행정은 자치제, 관료와 관리의 독주라는 측면에서는 최악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교육행정학에 관한 한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아시아교육행정학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생각을 해야 한다.

당시 수고해준 부회장, 국제학술위원과 발표·토론자, 참석자, 재정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사무국장 이석열(현 남서울대), 간사 이미라(현 충남대교육연구소 박사)에게 이제야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게 된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들도 생긴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미움 받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것도 느꼈다.

99년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시기였다. 그래서 연차대회로는 '새로운 세기의 한국교육행정의 변화와 전망'으로 잡아 학술위원장이었던 한국외대 윤종건 교수를 비롯하여 허병기, 주철안, 신현석, 김재웅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나중에 이들은 발표물을 정리하여 저서로 출판한 바 있다. 이 주제는 학회로서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 한국교육행정학은 새 시대에 맞는 형태로 Transform하지 못하면 우리의 교육,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을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행정학은 국제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Transform하기를 기대한다. 국제학술세미나의 Behind Story의 한 조각을 기대되는 젊은 학자들에게 남겨두고 가르칠 敎자와 붙어 산 지 45년, 교육행정의 敎行과 함께한 지 35년, 충남대 忠자와 함께한 25년을 Behind로 하고 이제는 Behind로 돌아가야겠다.



| 학회활동회고 |

한국교육행정학회 간사 회고: 인쇄소에서 원고 집필을....

정 일 환(제15대, 16대 간사, 대구가톨릭대)

198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발전연구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책연구와 더불어 대외적인 학술활동은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가 주된 무대였다. 이 당시 교육행정학회의 명칭은 한국교육학회의 하나의 분과학회로서 인정받던 시기이다. 필자가 교육행정학연구회의 간사로서(현 사무국장) 활동하던 시기는 제15대 회장 정태범교수님(전 한국교원대학교)과 제16대 회장 김명환교수님(전 경북대학교)이셨다. 당시에는 회장단 임기가 2년으로서 대개는 간사의 역할과 임기도 회장과 같이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사제인연으로 미국 유학가기 전까지 1년간 더 학회 봉사를 하게 되었다.

먼저, 기억나는 것 중의 하나는 간사이전 소위 수당 없는 간사보 시절에 연차대회 후 총회에서 회장선출 시간에 간사와 교육개발원 연구원 몇 명이 총회 다과 준비로 시장 보러 간 사이에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의 불참으로 당시 부장님이 간발의 차이로 아깝게 낙선되고(우리팀?이 참석했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지만), 아마 10년 지난 후 대학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시게 되었다. 연구기관의 특혜를 입지 못하시고, 대학경륜이 쌓인 후에 회장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학회도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분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학회장과 간사가 주로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등을 담당하였다. 학술대회의 주제선정은 주로 회장의 몫이었으나, 발표자 섭외는 간사의 주된 일이었다. 지금과는 달리 학문공동체가 얽은 시절에 발표자를 구하는 것은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하늘의 별 따기였다. 원고청탁과 더불어 발표 의뢰(?)는 쉽지 않았음은 십사리 짐작이 가리라! 신신당부 드려 발표자를 구한 뒤에는 원고 마감일에 맞춰 학술대회 자료집을 당일까지 인쇄하여 학술대회장으로 겨우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한번은 발표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원고가 학술대회 하루 전까지 완성되지 않아 당일 아침에 인쇄소에 친히 왕립하셔서 원고 작성과 교정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청타 인쇄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으니까, 이 당시 속 타는 심정은 아마 사랑하는 애인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심정이었으리라. 대신 원고 써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회장의 역할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원확보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회원들의 회비 의존도는 낮아 회장님은 출판사, 교육부, 교육청 등에 손을 벌려(?) 회원들이 꾸려 갈 식량을 구해 오셨던 것이다. 다행히도 제가 모셨던 회장님은 전직 경력으로 인하여 재원확보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며, 교육행정학도서 발간도 회장님이 잘 아시는 출판사에서 기꺼이(?) 무료로 발간 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12월 하순 연차학술대회 준비로 인하여 유학을 가기 위해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를 해야 하는 짧은 기간에 이사집도 제대로 못챙기고, 매섭게 추운 한파에 짐을 옮기고 겨우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기억이 난다. 전 학회 회장이시고 한국교육개발원장께서 다행히 학회 활동 열심히 한 죄로 휴직을 해 주셔서 그나마 편안히 비행기에서 허리 펴고 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교육행정 학회를 통해 이루어졌던 활동과 훌륭한 회원들과의 만남들이 필자를 학문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다른 학문의 여정인 것을 깨닫게 해 준데 대해 늘 고맙게 여기고 있다.

끝으로 학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직접적으로 회장님으로부터, 그리고 훌륭한 연구원의 박사님, 대학교수님들로부터 학문적·인간적인 가르침을 받는 행운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현 사무국장의 엄명에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학회활동회고 |

간사일기

권현정(제34대 간사, 경북대 대학원)

2006년 8월 00일

내일은 대학원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떠나는 날이다. 교장임용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에 나는 토론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나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지난번 학회지를 발송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였더니 되돌아온 학회지가 많았고 학회지 포장도 엉망인데다가 논문의 저자들에게 보낸 별쇄본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로 보내져 있었다. 다행히 지난번엔 무사히 일이 수습되었지만 다시 그 업체에 일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직접 포장하고 배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학부 학생들 몇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다. 시간을 보니 벌써 10시가 다되어 가는데 아직 발송할 학회지의 지역별 분류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우선 내일 세미나는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화를 드려서 나의 발표 부분의 대독을 부탁했다. 처음엔 발송할 학회지의 양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 시작했는데, 배송을 위해서는 우편번호별로 구분을 한 후 목록표를 만들어야 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예전에 우편발송대행업체가 없었을 그때에는 간사가 다 했던 일이 아니던가. 그때 이 일을 맡아 하시던 간사님들의 수고가 새삼 느껴졌다. 12시가 다되어서야 일이 마무리 되었고 수고를 해준 학생들에게 다음기회에 맛있는 저녁을 사기로 하고 집으로 갔다. 내일은 이 책들을 우체국으로 싣고 가야

하는데, 제발 우체국에서는 별일이 없기를 바란다.

2006년 8월 00일

아침부터 세미나에 참석할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오셨다. 700여권이 되는 학회지를 4층인 학회사무실에서 아래층까지 기꺼이 옮겨주셨다. 그 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직도 책을 나르고 있었을 것이다! 세미나에 참석을 못할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세미나보다 학회지 배송이 더 급한 일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미 떠나고 이제 우체국으로 실어다줄 트럭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여름 햇볕이 너무 뜨겁다. 시원하게 만들어놓은 음료수가 금방 미지근해 진다. 도착한 트럭에 학회지들을 싣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편집중국으로 가야지만 배송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기에 조금 거리가 있는 우체국으로 학회지들을 날랐다. 우체국 한켠에 학회지들을 쌓아놓고 대금지불을 하려고 했더니 어제 밤새 작업했던 것을 모두 다시 풀어야 한단다. 우편번호별로 작업해 놓은 것은 우편번호별로 다시 묶어야 한단데 또 한번 맥이 빠졌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일단은 우체국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같이 간 학생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다시 분류를 하고 같은 우편번호끼리 모아서 다시 묶는 작업을 하였다. 우체국에 불일을 보러온 사람들이 우리가 직원인줄 알고 자꾸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처음엔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다. 잠시나마 우체국 직원이 되어 보았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한 일이 오후 1시가 다되어서야 끝이 났다. 이열치열이라고 해장국으로 끼니를 채웠다.

2006년 10월 00일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 벌써 5시를 넘어가고 있다. 큰일났다. 오늘까지 논문심사결과가 다 들어와야 하는데 메일을 확인해 보니 아직 수신된 메일이 없다. 이번 학회지는 접수된 논문만도 32편에 논문심사위원이 64명에 달한다! 그것도 학회지편집위원장께서 배려해 주셔서 64명 밖에 안된다. 그런데 그 중에 20여분이 아직도 심사결과를 안 보내주시는데 우선 전화를 해봐야겠다. 한시간 동안 전화를 열심히 했는데 통화도 못한 곳이 있다. 좀 있다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다시 해봐야 겠다. 심사위원님들께 핸드폰으로 전화드리려니 죄송한 생각도 든다. 우선 세분의 심사결과가 수합된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표를 보내야겠다. 이번에도 1차 심사에서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이 드물다. “게재불가”판정도 여러편이 있다. 게재불가판정을 논문투고자에게 보낼려니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어 메일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까 잠시 고민해 보았다.

오늘도 집에 가서 저녁 먹는 건 포기해야 하나보다. 나는 이미 불량 주부다!

10월엔 학술대회에 학회지 발간, 뉴스레터 발행에다가 부회장선거까지 겹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학

술대회 발표 신청자들의 논문을 편집하고 나니 시간이 벌써 9시를 향해 간다. 교육학회 간사님께 늦어서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메일을 보내고 나니 수첩에 적어놓은 “오늘 해야할 일” 목록 중 하나가 지워진다.

우선 들어온 심사결과들을 정리해서 파일을 만들어 두고 내일 나머지 심사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두고 자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 놓고 나니 시간은 벌써 자정을 향해 가는데 눈도 아프고 컴퓨터도 지친것 같다. 대견한 녀석, 내 컴퓨터는 아마도 올해가 가고나면 명을 다할 것 같다!

집에 가려고 연구실 문을 열고 나오니 수위아저씨가 건물 복도의 불을 다 꺼버린 모양이다. 건물 전체가 깜깜하다. 오늘도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 건물에서 퇴근하네!

2006년 12월 00일

오늘은 연차학술대회를 하는 날이다. 어찌보면 한해의 학회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왠지 긴장되고 아침부터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불안하다. 오늘 행사를 무사히 끝내야 할 텐데 걱정부터 앞선다. 배숙의 아기도 이제 6개월에 접어들어 제법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비까지 추적추적 내린다. 일단은 오늘 행사에 최선을 다하자고 혼자서 다짐에 다짐을 더하고 행사장인 계명대학교로 향했다. 아침 일찍 행사장에는 나보다도 먼저 온 대학원의 선생님들이 계셨다. 각기 분담한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보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학술대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보았다. 학회지논문은 충분한지, 기념품들은 괜찮은지, 안내 데스크에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되었는지, 학술대회 행사장에 마이크는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하였다.

드디어 학술대회가 시작되고 교육행정학계의 거장이신 선생님들의 주옥같은 주제발표와 토론이 시작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셨다. 행사장이 좁아 책상과 의자를 있는 대로 가져다 놓았다. 조금 더 넓은 장소를 선택할 걸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차! 참석인원이 많아졌으니 빨리 식당에 가서 점심식사 상황을 알아봐야겠다. 점심식사도 추가해야 하겠지? 식당에 가서 식사를 추가하였는데 다행히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더 나누면 참석인원들이 모두 식사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럭저럭 학술대회는 끝이 나고 만찬시간도 끝이 났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가 지고 밝은 어두워져 있었다. 남은 음식들을 싸서 오늘 하루 수고해 주신 대학원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후에 뒷풀이를 약속했다. 이제 학회일들이 끝을 보이는 것 같다. 오늘 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해동안 학회의 간사로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되돌아 보게 되었다. 역사는 후세가 평가한다고 하던데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부끄러운 생각부터 먼저 들었다. 한해 동안 학회장님을 잘 보필했는지, 학회의 발전에 내가 기여한 바는 무엇인지, 간사업무라는 나무에만 급급하여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가 후회스러웠다. 그래서 ‘유종(有終)의 미(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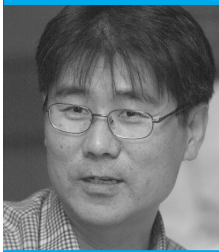
라는 말을 우리의 선조들은 만들어 두셨나보다. (이상 하략)

간사업무를 넘긴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간사일지를 뒤적여 보았더니 아직은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어쭙잖은 글로 그 기억을 정리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앞뒤가 맞지않는 일일지도 모르나 한해동안 학회 업무를 맡아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나의 인생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간사(幹事)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는 사람,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자에 TV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중 임금을 모시는 내시(內侍)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것이 있어 눈길을 끈다. 내시는 임금을 바로 옆에서 모시며 갖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직무인데, 내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지에 따라 나랏일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마음을 올곧고 겸양하게 먹고 묵묵히 자신이 할 도리를 한다면 역사책 한 귀퉁이에 이름을 알릴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내시가 되기도 하지만, 자칫 마음을 흐리게 가져 사리사욕에 눈이 먼다면 후대에까지 오명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곧 대선이 눈앞에 있어 사회가 온통 어수선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되어 쏟아져 나온다. 이렇듯 어수선한 사회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학회(學會)의 간사(幹事)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

중용(中庸)에 화이불류(和而不流)라는 말이 있다. 화합하되 휩쓸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내시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양과목으로 『소학』이나 『삼강행실』등이 꼽혔다는 것은 임금을 보좌하는 자의 가장 큰 덕목이 자질이나 행실에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화합은 하되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의 마음, 그리고 학회라고 하는 전문집단의 여러 업무를 맡아보는 간사의 마음에 까지 동일하다 할 것이다. 작고 낮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 학회활동 현황과 전망 |

학술행사 유감

천세영(충남대)

학회에 매달 가던 기억이 난다. 월례학술발표회였던 셈이었다. 지금은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만 행정학연구지 창간호가 나왔던 80년대초까지만 해도 꽤 여러 학회들은 월례학술발표회를 가졌었고, 적게는 열대여섯명에서 많게는 30여명 가까이 모인 회원들은 열띤 토론들을 했었다. 그래도 참가자가 적다는 생각도 안들었고 학회행사가 많다는 생각도 안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는 참석해야 할 학회가 한 달이면 최소 2-3회는 넘고 참석자가 이삼십명도 안되면 학회를 열심히 준비한 회장님은 물론 같이 참석한 회원들도 맥이 빠진다. 더 그렇다고 하여 요즘의 학회에서 토론되는 내용들이 옛적에 비해 월등히 질이 높다는 생각도 안든다. 다만 참가자 동원을 해서 장내가 꽉 차면 내용도 좋으리라는 자족 분위기만 역력하다.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사정도 이와 별로 다를 바 없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정을 개선해볼까 하는 것이 학술단체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임에 분명하고 이런 저런 실험들을 해보지만 쉽지않은 않다. 그래도 회원의 일원으로서 작은 아이디어 몇 가지를 내고 회원들끼리 같이 생각해볼거리를 보태려고 한다.

첫째로는 학회활동의 근간을 양질의 학술지 발간으로 중심이동을 하고 학회는 가능한 연 2회 이내로 줄이면 어떨까? 우리 학회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현재 춘, 추계 학술대회를 교육학회와 공동으로 하고 12월에 부회장 선거와 연차총회를 겸한 학술대회를 하며, 그 외 수시로 특별주제를 가진 학술토론회등을 한다. 모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와 연차총회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할 때 아마도 앞으로도 이는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시로 열리는 학술토론회를 최소화하면서 그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시 학술회의는 가능한 사회적 쟁점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적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되, 관련 단체들로부터의 재정적 행정적 후원을 받고 개최함으로써 참여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정기학술대회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무엇보다도 대학원생과 현직 교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학술대회의 경우와 같이 대회기간을 공휴일을 포함하여 2-3일 이상 장기간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이러한 정기학술대회는 1년에 1회로 한정해야 한다면 교육행정학회의 12월 연차학술대회를 겨울 방학 또는 여름 방학기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 참여폭을 넓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식은

발표의 형식을 완성논문만이 아닌 프리젠테이션, 포스터, 라운드테이블, 패널토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 다양한 발표욕구를 가진 회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한편 저명한 국내외 학자들을 초빙강연자로 초대한다면 회원들의 참여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로는 학회활동의 국제화를 위해서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트랙을 권장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회원들은 국내를 넘어 국제학회에 참석도 해야 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도 영어로 진행되는 트랙이 필요하며, 아울러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사전에 외국에 홍보한다면 한국교육에 관심있는 외국학자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학회활동 현황과 전망 |

학회지 발전을 위해 학회 운영진에게 드리는 제언

허병기(한국교원대)

우리 학회 회원들의 성심어린 협조로 학회지인 《교육행정학연구》는 그간 순조롭게 발행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투고해 주시고 있고, 원고를 심사하기 위해 여러 회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여와 학회지 발간의 실무를 맡은 편집간사의 노고 또한 순조로운 학회지 발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 학회의 학회지는 쉬지 않고 발간되고 있고,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 학회지를 더욱 우수한 학술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회지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 보거나 유념해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① 논문 심사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매호마다 투고자 수는 많은데 심사자 풀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매번 거르지 않고 심사를 해 줘야 하고, 두 편씩 심사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논문 한 편을 꼼꼼히 검토하여 판정하고 심사평을 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뒤따른다. 그래서 심사의뢰가 오는 것을 달갑지 않

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논문 심사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논문 1편당 심사료 3만원은 적다. 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회원으로서의 의무 혹은 봉사 정도로 생각하고 적은 심사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회 경비를 다른 곳에서 절약해서라도 학술지 발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심사에 대한 보상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투고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논문 투고자의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논문 심사료, 기본 게재료, 기본 쪽수 초과에 따른 추가 게재료 등을 합하면 상당한 액수가 된다.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부과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명분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수익자 부담을 생각한다 해도, 사실 알고 보면 ‘수익자’는 누군가 애써 연구한 결과로 얻은 지식을 나누어 갖게 되는 사람들일 것이다. 열심히 연구하여 좋은 지식을 생산해 발표한 사람에게 게재와 배포에 드는 비용을 떠맡게 하려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학회 재정 형편상 일정액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액수를 최소화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이 옳다고 본다. 학회가 다른 행사나 활동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아껴 그것을 학회지 발행에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일 것이다.

③ 학회지 내용 체제와 관련하여

학회지가 개인 투고 논문만으로 채워지는 상태를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년 들어 편집규정을 보완하여 학회지가 보다 다채롭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이 달라진 학회지를 내지는 못했다. 기획된 주제에 의한 청탁 논문, 기 발표 논문에 대한 비판과 토론, 주목되는 책에 대한 서평 등이 가미될 때 학회지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질 텐데, 그러한 일을 해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회장단, 편집위원회, 일반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때 가능한 일인데, 그러한 여건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학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관심을 보여야 할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④ 학회지에 대한 학회의 우선적 관심과 관련하여

학회지는 학회의 얼굴이고, 학회의 정체성이다. 학회라는 학문공동체가 이룩하여 세상에 내어 놓는 가장 적나라한 성취다. 학회지가 학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러한 만큼, 학회 운영진과 회원들은 학회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학회지가 충실하지 못하다면, 학회의 다른 어떤 활동들도 의미 있는 것이 되기 힘들다. 세미나도 중요하고 학회 기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즈음에서는 학

회지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일에, 학회지를 명실 공히 일류화 하는 일에, 학회가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욱 좋은 논문들이 모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며,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더 흥미롭게 대할 수 있는 학술지를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학회의 조직, 재정, 사업계획 등 전반에 걸친 재조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넘치는 투고자가 있으니 학회지는 가만 뒤도 굴러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일이다. 만약, 학회지의 발전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외적인 행사나 활동에 조직과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학회가 가야 할 좋은 길이 아닐 것이다.



| 학회활동 현황과 전망 |

교육행정학의 미래 발전 방향

박선형(조선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행정학의 학문발전을 염원하는 소장학자로서 뿌듯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돌이켜 보면 결코 짧지 않은 40년의 역사 동안 우리 학회는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학회구성원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차대한 다중적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교육행정학자들은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평가 영역에서는 주요자문 집단으로서, 교육행정이 연수와 교사훈련에 있어서는 전문교육자로서, 학문의 세계에서는 교육행정 현상을 체계적으로 구명하는 연구자로서, 때로는 국가 교육정책기관을 주관하는 책임경영자로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있다.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활동 중이신 원로교수님들의 깊이 있는 연륜과 연구 활동에 대한 중진·소장학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지금의 학회발전을 이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일찍이 공자는 인간 나이 마흔을 불혹이라 하여 천명을 완전히 깨우치지는 못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시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학회의 외형적 성장, 내실 있는 학회 행사, 학술활동 내용의 충실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인간 나이 불혹에 상응하는 발전 역량과 지적 성숙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학회규모의 확대와 학술행사의 활성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공자의 관점에서 천명)이 충실히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과 염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규명과 학문체계 확립, 교육행정 현장문제의 과학적 연구·해결, 교

육행정 이론과 실제의 균형적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학회의 노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본 글을 작성하면서 학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생적 이론구축을 통한 교육행정학의 학적 체계성 확립’이라는 연구 사명에 소홀했음을 철저히 반성하는 계기를 가졌다.

그동안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동향 및 미래발전 방향 진단은 핵심연구주제로써 개인논문과 학술대회에서 상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선행연구들은 교육행정학의 학문발전을 저해하는 당면 문제점을 “체계적인 이론구축 노력 미흡, 교육행정원리와 규범에 대한 철학적 고찰 미비, 학술대회의 심층담론 부족, 현안 중심의 정책연구 강조, 교육행정이론과 실제의 구조적 괴리, 연구방법의 다양성 부족, 개방된 비판적 논의 결여”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물론 이론적 관점과 학자의 시각에 따라 다소 강조점의 차이도 있지만 전술된 문제점들은 교육행정 연구 활동의 공통적인 반성적 요인들로 간주되고 있다. 향후 교육행정학의 발전 방향과 미래적 좌표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이들 문제점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극복하면서 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한 명료한 비전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전략 개발은 학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소장학자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짧은 소견이나마 교육행정학의 미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학 연구의 발전 방향은 시대정신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기초하여야 한다. 우리는 산업사회가 아닌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다.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발전과 개인 생산성의 창출동력으로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등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상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지식자본주의가 지배적인 경제패러다임으로 정착되면서 맹목적인 믿음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은 전적으로 소수 엘리트의 지적 창조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류문명의 진화역사는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개인의 창조성은 시대발전을 주도하는 원천동력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예컨대, 현대의 전기문화는 단순히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결과에만 의존해서 성립되지 않았다. 백열전구의 실용화와 이후의 전자산업발전은 그 당시 사회구성원의 창조적인 협력노력(배전반 설계, 발전기 제작, 전선 공사, 발전소 설립 등)과 사회적 수용성에 근거해서 가능했다. 즉 지식의 원천경쟁력은 생산 활용가치와 사회 공유가치를 동시에 가질 때 극대화 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행정학의 향후 연구 방향은 협동적 창조성(개인활용지식+사회협력지식)을 공교육 체제 안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함양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¹⁾ 이는 교육정책과정의 재형성과 교육체제 전반의 급진적 변화(학제개편, 교육조직의 재구조화, 학교시설·학급환경의 재구축, 교사연수훈련과 교육행정이 양성프로그램의 재설계, 교육과정내용의 적절성과 수업평가도구의 타당성 확인, 교육재정분배의 우선순위 결정 등)를 유발할 것이며, 이는 교육

1) 사회협력지식의 내용범위는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집단문제해결력, 인간관계기술, 태도기술, 의사소통능력, 팀워크, 협동학습능력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학자들의 식견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주요 연구영역으로 귀착될 것이다.

둘째, 향후 교육행정학은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범학문적 연구, 즉 학문의 통섭(consilience)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문제와 행정현상은 관습, 제도, 정책, 조직, 이해집단, 개별 행위자 등의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다층구조를 가진다. 편향된 학문적 관점과 경직된 연구방법론은 다면적 성격을 가지는 교육행정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협력적 창조성이 중요하듯이 교육행정 관련 학술활동과 연구방법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모두를 포괄하는 협동적 시각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학의 하위 학문영역과 연구관심 주제에 상응하는 여타 학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와 교류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연구주제(예: 유아교육·보육기관 통합인증평가제 도입여부, 과학교사의 수업전문성 개발, 조기유학의 적절성 문제, 3불정책, 관·산·학 협력체제 구축, 고등교육기관의 지역평생학습센터화, 지방분권체제와 교육자치, 교육기관의 지식기반공동체 구축, 지식의 종류와 성격 등)를 대상으로 우리학회와 인접·기타 학회들(교육학 관련학회, 한국철학회, 한국인지과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지식경영학회 등) 간의 연계적 협동연구나 공동세미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

셋째, 교육행정학 이론의 심층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학술대회에 대한 철저한 사전 기획제도를 도입·실시하고, 교육행정학 하위 학문영역(교육정책, 교육행정철학, 교육조직이론, 교사교육, 지도성, 연구방법론 등)을 대표하는 외국저명학자 초청 국제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국제학술세미나 유치를 통한 교육행정이론발달의 최신동향 파악은 다양한 개념적 참조 기제 획득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행정현상 진단과 교육문제 해결전략 구안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교육행정 관련 국제학술지(미국의 EAQ: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영국의 EMA&L: Education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 Leadership, 호주의 JEA: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캐나다의 JEAF: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Foundations, 미국의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Educational Researcher) 등에 논문 투고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육행정 현상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자생적인 교육행정이론 구축에 필요한 비판적 검증과 이론의 정련화를 촉진할 것이다. 국제저명학술지 논문등재 활성화 전략으로는 학회차원에서 다양한 유인책(예컨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의 정기학술대회발표와 포상금 수여, 뉴스레터를 활용한 출판홍보, 중요교육현안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게재 전담 TF팀 구성운영 등)을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행정학의 이론 체계 확립은 현장연구와 후속연구의 토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현장 문제해결력과 실천 적용성을 결여한 이론은 학자들만의 공허한 독백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행정 이론과 교육실제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육 현안별로 해당 전문성을 갖춘 일선 교사, 교육행정이 등의 참여적 연구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행정이론의 단순반복 논

의와 연구결과의 확대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제별로 학회주도의 장기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 협력연구와 후속연구의 계획적인 실행을 통하여 교육행정이론의 논리정합성, 개념모형의 정교성, 다양한 변인간의 인과성, 연구결과의 보편성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행정학회의 구성원 모두는 지난 40년간의 헌신적 연구노력을 바탕으로 진리탐구라는 학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학문발전을 위한 개인열정과 교육행정학의 이론체계 확립에 대한 학회의 체계적 노력이 결합된다면 학회창립 50주년 기념학술대회는 지천명(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한마음 큰 잔치마당이 될 것이다. 서로의 학문적 노고를 치하하며 학회의 시대적 소명 완수를 다같이 축하하는 기쁜 그 날을 고대하며 부족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 학회의 영원한 발전을! 한국교육행정학회 파이팅!



Ⅰ 학회활동 현황과 전망 Ⅰ

교육행정학 전문서 발간의 성과와 미래

이윤식(인천대)

한국교육행정학회는 1977년부터 부정기적으로 단행본 저서를 발간하여왔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행정학의 세부 영역별로 전문서가 발간되기 전까지는 모두 4권의 단행본 저서가 발간되었다.

1977년 윤형원 회장 재임시에는「현대 교육행정 이론」을 발간하였고, 1979년 김운태 회장 재임시에는「한국 교육정책의 탐색」을 발간하였다. 1985년 정태범 회장 재임시에는「교육행정의 연구와 과제」를 발간하였고, 1992년 강영삼 회장 재임시에는「한국교육행정의 발전과 전망」을 발간하였다.

1995년 최희선 회장 재임시에「교육행정학 전문서개발기획위원회」(위원장 윤정일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행정학의 이론과 실재를 총망라하는 교육행정학전문서 전10권을 완간하여 학회의 오랜 숙원사업의 결실을 맺었다.

당시 발간된 10권의 교육행정학 전문서는 다음과 같다.「교육정책론」(김신복, 김명한, 김종철, 백현기, 윤형원),「교육제도론」(노종희, 강무섭, 신재철, 정진환, 최희선),「교육조직론」(남정걸, 김창걸, 왕기향, 윤종건, 이근현, 이형행),「교육인사행정론」(서정화, 김만기, 송광용, 송미섭, 신철순),「장학론」(강영삼, 이윤식, 조병효, 주삼환, 진동섭),「교육재정론」(윤정일, 곽영우, 김운태, 김재범, 김태완),「교육시설행정론」(신중식, 김영철, 석진복, 유향산, 한은숙),「교육법론」(강인수, 박재운, 안규철, 안기성, 정태수, 표시열),「학

교육급경영론(정태범, 문낙진, 박병량, 박종렬, 이순형), 「교육행정연구법」(이종재, 강길수, 김선종, 이종각, 정영수)이다.

이어서 2003년 강무섭 회장 재임시에는 2차「교육행정학 전문서개발기획위원회」(위원장 서정화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추가로 교육행정학 전문서 10권 발간을 추진하였고, 현재 7권 발간을 완료하였다.

당시 발간된 교육행정학 전문서는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론」(윤정일, 김병주, 김영철, 김운태, 윤종진, 이현청), 「교육행정평가론」(박종렬, 권기욱, 김창곤, 배호순, 임연기, 정영수), 「평생교육행정」(남정걸, 김남순, 김재웅, 정진환), 「교장론」(서정화, 이윤식, 이순형, 정태범, 한상진), 「교육지도성 및 인간관계론」(신중식, 노종희, 김혜숙, 김홍주, 박세훈, 명제창, 송광용, 이일용), 「교육경제학」(곽영우, 김명수, 반상진, 최준렬), 「국제교육행정론」(임천순, 김이경, 김태완, 엄상현, 한유경) 등 7권이 발간 완료되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현재「교육행정철학」(주삼환, 박선형, 박재운, 신재철, 신현석, 허병기), 「교육행정사」(강영삼, 강인수, 김성렬(서원대), 송기창, 유현숙), 「교육기획론」(김신복, 강무섭, 주철안, 정일환, 신봉섭, 조동섭) 등 3권이 집필중이다.

1995년에 1차 교육행정학 전문서 10권이 발간된 후 이제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완전히 새로운 집필진을 구성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은 3차 교육행정학전문서 발간이 요청되는 시점에 있다. 학술편찬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수차의 협의와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전 11권의 전문서 발간을 위해 현직에서 활동 중인 총 72명의 집필진 구성이 완료되었다(본 지 학회활동 중 '교육행정학 전문서 발간' 참조). 2008년 8월 발간 목표로 현재 각 팀별로 집필책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원고 집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체에 관심있는 학자들과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하여,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여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행정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보급함과 동시에 교육행정 현장의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결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이러한 창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육행정학 전문서 발간은 교육행정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보급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학문적 시대적 발전에 부응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은 3차 교육행정학 전문서가 발간됨으로써, 교육행정학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초·중등학교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연구직 및 장학 요원 등의 연구·학술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학회활동 현황과 전망 |

국제교류 성과와 미래

고전(제주교대)

2006년 본 학회 요람에는 국제학술교류 실적에 관한 소식으로 13회에 걸친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금번 학회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 사무국으로부터 ‘국제교류 성과와 미래’에 대한 정리를 부탁받았다. 그다지 국제교류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은 필자로서 이런 주제에 대한 논의에 부담을 느끼면서 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그간의 국제학술위원회에서 봉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한다.

요람에 의하면 22대 신중식 회장님 재임시절인 1994년 10월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제1회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첫 학회 차원의 국제학술교류 활동으로 보인다. 교육행정학연구회 창립(1967년)후 27년만의 나들이라 하겠다.

바로 이듬해 23대 광영우 회장님이 1995년에 학회 위원회로서 처음 ‘국제학술대회위원회’(노종희위원장, 김윤태, 백명희, 신중식, 윤정일, 한경수)를 조직하면서 국제학술교류업무는 독립적 기구에 분담되었다. 이 국제학술대회위원회는 2006년(박종렬회장)부터 ‘국제학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1년(서정화회장)에는 부위원장제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어오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하거나 일본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는데, 이는 교육행정학회의 국제학술 교류활동이 일본과의 교류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2007년 12월 현재까지 14회를 거쳐 오면서 한일 양국이 각각 7회씩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은 통상적인 학술대회나 연차대회와는 별도의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 형태로 운영해온 반면, 일본의 경우는 연차대회를 겸하여, 하나의 세션으로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예외적으로 2004년 일본 기후대학에서의 제11회 세미나는 연차대회와 달리하여 별도로 개최된 경우가 있었다).

주제에 있어서는 제1회의 ‘지방교육자치제’를 필두로 대학개혁, 교육재정, 교원교육,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학교경영개혁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초반부에는 매년 개별 주제를 다루다가 2002년부터는 일본 교육행정학회 측의 요구에 따라 3개년 기획주제로 정하여 하여왔는데, 학교경영개혁이라는 대주제하에

서 교육개혁, 학교평가, 학교참여 문제를 3년간 다루었고, 이어 금년까지 고등교육 개혁의 주제를 3년간 다루었다.

발표자의 구성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회원간의 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14회 가운데 8회 있었고 다섯 번은 양국 외에 중국, 미국으로 확대했으며, 당시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학자가 초청되기도 했다. 양국 외로 확대한 공동세미나는 한국이 3회, 일본이 2회 개최하였다. 동시에 양국 외의 국가가 참여할 경우 한·일 양국의 발표 토론의 비중은 그 만큼 협소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개최된 2007년의 14회 대회의 경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발표주제 및 토론 규모면에서 일본의 경우 2000년의 7회 세미나(북해도 대학)에서 두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 발표자가 양국 각각 4명씩 총 8명이 참여한 경우가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2003년(강무섭 회장)의 10회 세미나의 경우 양국의 총발표자가 6명에 토론자가 6명이 대거 참여했던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7회 개최한 가운데 기초강연을 가졌던 경우가 세 차례 있는 반면, 일본은 기초강연을 둔 경우가 한 차례(2002년도 제9회 세미나- 한일양국 모두 기초강연) 있었다. 지금까지 14회에 걸친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 개요(1994~2007)

회수	일시 및 장소	주제분야	구성	비고
1	94.10 일본 교토대	지방교육자치제	한일 각각 발표1,토론1	첫째 공동세미나
2	95.9 한국 원광대	대학개혁 정책	한일중 각각 발표1,토론1	중국 학자 참가
3	96.9 일본히로시마대	교육재정	한일 발표1,한국토론1	
4	97.9 한국교총	교원교육 정책	한일 각각 발표1,토론1	
5	98.10 일본큐슈대	경제위기와 교육정책	한,일,중,태국,말레이 발표	5개국 확대
6	99.10 한국 한남대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제	호주,일,홍콩,미국,한국	5개국 확대
7	00.10 일본 북해도대	분권화와 교육행정연구	한일 각각 발표4명씩	세션2 발표8명
8	01.10 경주 조선호텔	교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일 각각 발표2, 토론2	기조강연(이돈희)
9	02.10 동경도립대	학교경영개혁Ⅰ-교육개혁	한일 각각 발표1, 토론1	기조강연-한일1
10	03.9 교육문화회관	학교경영개혁Ⅱ-학교평가	한일 각각 발표3 토론3	최대토론발표12
11	04.9 일본 기후대학	학교경영개혁Ⅲ-학교참여	한일 각각 발표1, 토론2	
12	05.10 공주대학교	대학특성화와 구조조정	한일 각각 발표2, 토론2	기조강연(김신복)
13	06.10 동경청소년센터	고등교육 질적 향상·평가	한,일,미,인도네 발표	4개국 확대
14	06.10 고려대	고등교육 시장화 다양화	한,일,미,중 발표	기조강연(이종재)
종합	한국7회, 일본7회	최근 3개년간 기획주제	한일 이외국가 확대 6회	기조강연 4회

14회를 거쳐 오면서, 양국의 교육현황 및 개혁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고, 학술적 교류 및 인적교류도 과거에 비하여 활발히 촉진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교육행정학공동세미나를 포함하여 본 학회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우려 점을 살펴보고 미흡하나마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지되고 있듯이 국제학술 교류활동 범위에 관한 점으로서, 일본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들이 있다. 학회차원의 국외교류가 일본 이외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국제학술위원회가 아닌 전체 학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라고도 본다. 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한 듯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차례 양국외의 국가로 확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 경우 미국과 중국, 기타 아시아 국가의 학자가 추가되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명분상으로 참가국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으나 한·일 양국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자체가 일회적인 행사에 머물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는다. 국제학술 교류의 일본중심 경향은 학회의 의도적인 편향된 관심의 결과라기보다는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가진 회원들의 노력과 인적교류의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듯싶다. 현재까지의 한·일 교류의 역사를 정리하거나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학회 임원들이 고려해야 할 학회사적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일양국간의 교류는 교류대로 맥을 이어가면서, 국제적인 조류 파악을 위한 일회성 행사는 학회 전체차원에서 기획하여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 국제세미나와 양국공동세미나를 동시에 개최하더라도 교류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충분한 세션의 할당 등으로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벤트성 국제학술대회에 한·일 이외의 학자 한 두 사람을 발표자로 넣는 것을 명실상부한 국제학술 대회의 완성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한·일공동세미나에 이어서 한·미간 그리고 한·독간 등의 학술 교류가 가능하다면 더 없이 환영할 일이다.

둘째, 국제학술위원회 관리체제 면에서 어려움이 노정되기도 했다. 1년 단위로 임원진이 교체되는데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한일공동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학회업무 매뉴얼이 잘 정리되어있지 않아 회장단 및 사무국이 동분서주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매년 겪고 있는 형국이다(초청자의 범위와 경비 및 발표수당 부담 원칙 등). 특히 한국에서 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년도의 임원단의 경우 그 수고스러움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국제학술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승계방식이나 일부위원 잔류 교체 방식에 의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높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2007년의 경우 국제교류위원은 14명으로 역대 최다였으나 업무추진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해였다는 점에서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한·일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의 내용 구성에 관한 문제를 들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14번의 주제 선정은 대체적으로 교육개혁의 화두로 하여 진행되어왔고, 초·중등과 고등교육, 그리고 교원교육 등에 걸쳐있었다. 2002년부터 3개년 기획과제로 선정된 것은 일본의 학회임원이 임기가 3년 단위 임을 감안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2007년 양국 임원단 및 국제학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향후 조정토록 결정되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제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교육 개혁에 관한 주제도 필요하나 교육행정의 연구대상 및 방법, 그리고 양국 학회의 연구성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한일 양국의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보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제 발표 및 토론자의 선정은 관련 주제의 책임성을 최우선의 선정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제학술위원회의 구성원은 책임자가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책임' 차원의 대기자 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발표자의 중량감에 대하여도 양국 국제학술위원회 당사자들이 사전에 조율하여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년차적인 발표 및 토론의 중복은 피하는 것이 양국 학회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도 싶다(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한·일교육행정학회의 교류 범위에 있어서는 일회적인 세미나에 그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양국 회원 간에는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지고 있고, 공동연구의 제안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양 학회의 주된 산출물인 학술지 영인본이나 CD의 교환은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핵심적인 연구업적에 대한 상호간 번역 사업이나 학회차원의 국제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학회차원의 추천절차와 과정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박사학위 논문 리스트 정도는 공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체적으로 학회차원에서 일회적인 학술세미나라는 장은 마련되었는데, 실질적인 교류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이다. 구체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학술교류가 적극 추진되고 있지 못한 데에는 한국의 학회장이 1년 단위로 바뀌고 지나치게 많은 학술대회를 1년 중에 소화해 내야하는 학술대회 인프레 상황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끝으로, 국제학술위원회는 학회 대 학회 차원에서의 교류를 넓히기 위한 행사기획을 주 업무로 하여야겠지만, 회원 개인의 국제학술활동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회원의 연구에 필요한 외국의 교육현황에 대한 정보의 요청과 교류의 창구로서 학회 및 학회 사이버공간이 활용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소개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정책연구에서 외국의 사례검토는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면서 책임자의 인선은 '아름아름' 인선방식에 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것을 공인된 외국의 실상으로 그대로 소개한 보고서는 지천에 널려있다. 이 경우 책임자에 대한 추천을 학회에서 연결해 줄 필요도 있겠고, 적어도 학회차원의 국제학술 행사시 외국의 인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교육행정학회의 추천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회원이 외국의 학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본 학회에서 지원하거나 발표 연구물을 적극 홍보하여 교류의 성과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대학들이 선호한다는 SCI급에 등재된 교육행정 분야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궁금해 하는 회원이 적잖이 있지도 싶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나 국제학술 교류행사가 국내외 학위자 및 연구 기반국 간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 학회 회원의 국제적 시각을 넓혀주는 안내자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원은 자신의 학문적인 국

외 기반을 초월하여 국제적 학술교류에 편견없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학회 내에 있을 수 있는 특정 국가를 내세운 학문적 사대주의와 특정 국가를 지명한 편파주의는 모두 국제학술 교류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그 '주의'에 빠지기 쉬운 시기는 공교롭게 연구력을 인정받아 '미국통' '이니' 일본 통 '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 때쯤이지 싶다. 국제학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것은 그런 염려에 대한 고민을 미션으로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필자의 지난 6년간의 국제학술위원회 활동에 대한 하나의 반성문으로 읽어 주셨으면 싶다.



| 학회활동 현황과 전망 |

학회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현황과 전망

김병주(영남대)

1.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회원수나 학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교육학회 산하 수많은 분과학회중에서 단연 선두그룹에 속한다. 기금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현재 교육행정학회는 기금으로 1억 3천 5백여만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처럼 적지 않은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분과학회는 드물 것이다. 교육학회 산하 분과학회 중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금 모금에 있어서도 앞서 가고 있는 만큼,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 한 이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본 학회의 기금은 일반기금과 특별기금으로 분류하여 조성하여 왔다. 일반기금은 본 학회의 회원이 자율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기금은 본 학회 회원이 연구용역 수행, 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저서 출판, 보직임용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액 이상을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학회 기금관리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학회 회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기금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 ①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해 용역연구를 수행할 시 연구책임자는 1차분 연구비를 수령할 때 연구비 총액의 3%이상을 기부금으로 기부한다.
- ② 본 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외의 개인적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0,000원, 연구비 수혜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100,000원 이상의 게재료를

기금으로 납부한다.

③ 본 회 회원은 교육행정학 관계 저서 출판시 1편당 100,000원 이상을 기금으로 기부한다.

④ 본 회 회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주요 보직을 맡게 된 경우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

학회의 초창기부터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한 용역연구의 기회가 많지 않았고, 용역연구에 대한 대학의 간접관리비 징수가 보편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한 용역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비 총액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낌없이 본학회에 기부했었다. 그러나 학회의 회원이 급증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한 용역연구의 기회가 크게 확대됨은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이 용역연구에 대한 간접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용역연구비 총액 일정비율의 기부금 납부는 사실상 자취를 감춘 셈이 되었다. 다만 학회의 이름으로 연구비를 수혜받아서 학회가 일정비율의 간접관리비를 징수하거나, 학회지에 게재하는 연구비 수혜논문에 대해서는 일반논문에 비하여 20만원의 논문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된 셈이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용역연구에 대한 간접관리비의 징수비율을 점차 높이는 상황에서 용역연구를 통한 교육행정학회에의 기부금 납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기금을 통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특정 사업을 위한 특별기부금을 모집하는 방향으로의 선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기금보다는, 그동안 모집을 소홀히 해 왔던 일반기금을, 기금사업과 연계하여 모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통한 다양한 사업방안들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본 학회의 기금규정 제4조에 의하면, 기금 관리의 책임은 본 학회 회장에게 있다(제1항). 또한 기금 관리는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되 세부적인 관리방안은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2항). 기금위원회는 본 학회의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며(제5조 제1항),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그동안은 기금의 관리는 회장단이 교체될 때마다 정기 예탁을 해서 1년 후에 찾는 방식이었으며, 현재의 기금도 전액 농협의 정기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실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금을 제대로 쓰임새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금의 이자소득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 자체를 키워야 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기금을 보다 잘 운영하여 이자소득 혹은 투자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금의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모형·계약형 수익증권 또는 회사형 뮤추얼펀드 형태로 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 2금융권 예치, 공사채 및 주식 등의 유가증권 취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회장단이 1년마다 교체되며,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금을 책임감있게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현재와 같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 내에서도 예치기관을 특정 금융기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기관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기금규정 제6조(기금사용제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한해 본 학회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억 3천 5백만원의 기금을 현재와 같이 은행권 정기예금에 예탁할 경우 연간 7백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정도 규모의 금액으로도 몇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기금을 조성하고 모을 단계이지 이를 사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금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도 기금을 통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컨대 특정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자의 이름을 딴 학술상을 제정한다든지, 반대로 특정학술상의 제정을 위하여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기부금을 모금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당 사업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모학회인 한국교육학회에서는 학술상과 우수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교육행정학회에서도 격년의 학술상을 제정한다든지, 영어학술지를 발간한다든지, 한일 공동학술회의를 넘어서서 다양한 국가들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위해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기금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아무런 걱정없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 학회활동 현황과 전망 |

참여 및 지식공동체 형성을 위한 회원관리 및 홈페이지 활성화

정금현(교육인적자원연구원)

우리 학회는 1967년 창립 당시 회원수 34명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창립 초기의 회원은 대학교수·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는 회원의 대다수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직급별 구성은 대학교원, 초·중등교원, 연구원, 교육행정요원, 학생, 기관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100여개 대학교,

10여개 연구소, 기타 70여 개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는 학생회원을 두어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도 학문공동체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학생회원이 400여명 정도 가입되어 있다. 최근에는 학문분야가 세분화 됨에 따라 다른 학문분야의 학자들이 우리 학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동시에 우리 학회 회원이 복수의 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보편화되었다.

40년 전통의 우리 학회는 그동안 양적으로 큰 성장을 보여 왔고, 학회 회원들간의 학문적 연대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예를들어 전문서 집필, 정책연구, 학술세미나 등에 회원들이 적극적 참여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매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회원들의 주요 학술활동 및 근황을 소개하여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회원 확보 및 참여를 유도하고, 회원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학회는 학생회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 평생회원제를 도입하여 회원들이 장기적으로 학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회 회원들에게 보다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회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학회 홈페이지는 학회소개, 회원마당, 학술대회, 학회저널, 논문접수, 게시판, 사이트 링크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학회 홈페이지를 학회에서 제작·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학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이트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

그동안 학회홈페이지는 학회에 대한 홍보, 회원들간의 정보교류, 학술자료의 공유, 논문 접수 및 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 현재 홈페이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회홈페이지를 통한 회원들의 참여 유도과 지식공동체 형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되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해야 한다.

학회홈페이지는 회원들간의 정보교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술적 지식 공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학회차원에서 집필한 전문서, 학술대회 자료, 정책연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학회 홈페이지에 양질의 학술자료가 많이 탑재된다면 학회 회원도 증가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회원제를 도입하여 연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학회회원을 온라인 회원과 오프라인 회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학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우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해 온라인 회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원·고객지향적인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회홈페이지가 실질적인 회원간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관계경영

(CRM)적 관점에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SMS 및 e-메일 연구정보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회의 행사에 대한 공지뿐만 아니라 최신의 연구동향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들의 학회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홈페이지를 통해 학회 구성원이 지식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

학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홈페이지 관리 예산의 부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학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회 홈페이지가 지나치게 관리자 중심의 유지·관리체제였던 것을 개선하여 학회 회원의 참여로 이끌어 가는 홈페이지로 개편한다면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학회 홈페이지가 관심분야별로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때 진정한 학회 홈페이지의 기능이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지식공동체의 형성은 앞으로 학회 발전의 주요 전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학회 홈페이지의 지식공동체화를 위해 이러한 방안들을 회원들이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학회에 바란다 |

학회의 다변화

박상완(부산교대)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교육행정학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학회 운영에 관한 평가와 더불어 학회 및 학문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이 글은 학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부로 특히 젊은 학자군의 일원으로 학회에 희망하는 바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글의 성격상 회원 ‘개인의 학회 활동’에서 변화되어야 할 점보다는 ‘학회 운영’ 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초점을 둔다.

근자에 들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와 각종 학회 지원 사업의 확대 등으로 학회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교육행정학회는 교육학 분야에서도 회원의 규모나 회원들의 참여도 면에서 가장 왕성하고 의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회이다. 학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층이 다양해지면서 학회 운영과 관련된 회원들의 요구도 다원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회 운영이 관례화되고 다소 폐쇄적이며 회원들의 다양성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때 학회 임원 추천제, 발표자 및 토론자 공모제를 시도하는 등 회원들의 학회 참여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으나 이것이 학회 운영의 주요 절차와 방법으로 정착된 것 같지는 않다. 회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소통 구조, 임원 중심의 학회 운영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회에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 하는 문제는 학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쇼’를 하거나 ‘블루 오션’ 전략 등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비판은 쉽게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더욱이 이를 현실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안의 마련과 현실화는 앞으로 학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몫이라 보고, 이 글에서는 학회의 ‘다변화’에 초점을 두고 학회 발전을 위한 과제를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변화는 학회 기능의 확대 뿐 아니라 질적인 전환을 포함하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학문 후속 세대,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학회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학회마다 대학원생들을 위한 포스트 발표 등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보다 확대, 다원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AERA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는 대학원생 위원회(Graduate Student Council)를 중요한 학회 조직의 일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참고할

만하다. AERA의 대학원생위원회는 대학원생에서 전문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학문적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어려움, 보상, 도전, 그리고 지원 네트워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교육행정 전문직, 학교 관리자, 교원 등 현장 전문가(professional practitioner)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학회에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장 문제에 기초한 교육행정학 연구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 교육행정학의 고유한 이론체계를 정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교육행정학은 성격상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 이론과 실제와의 연계와 상호보완이 중요하다. 교육행정학회가 우리나라 교육행정 나아가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외되어 온 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들의 전문적 경험을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외연을 넓히고 통합 학문적 연구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인접 학문 분야간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학문적 교류를 보다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사회학회와 교육격차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는 매우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 학문적 분파와 폐쇄적 성격을 탈피하기 위해 이러한 인접 학문간 교류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학술교류를 보다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교육행정학회와의 학술교류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학술교류 활동을 일본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학술교류와 더불어 한국의 교육제도를 배우려는 국가들과의 학술교류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제주도 교육학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리 교육이 내부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실천의 사례를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것과 더불어 국제 학술교류 활동도 다양한 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Ⅰ 학회에 바란다 Ⅰ

대학원생의 참여 확대를 통한 학회의 활성화

엄준웅(고려대 대학원)

먼저, 한국교육행정학회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분야에서 선

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또, 학문의 세계에 있어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저에게 대학원생을 대표하여 학회 뉴스레터에 글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행정학을 공부해 보겠다고 이 분야에 뛰어든 이래 저에게 있어 한국교육행정학회는 남다른 애착이 있는 학회입니다. 석사를 마치자마자 시작하게 된 학회 사무국 일을 통하여 한국교육행정학에서 내 놓으라 하는 분들을 가까이서 뵈고 함께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대학원생들에게 있어 학회란 공부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정된 과목이나 주제들을 다루는데 비해 학회는 교육행정학이라는 분야의 연구동향과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시시각각 다루어지기 때문에 학업을 시작한 대학원생들에게는 더 없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회에서 자신이 연구한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주위의 격려도 받고, 한 단계 더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BK21사업이나 고등교육중점연구소사업 등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많은 대학이나 사업단들에서는 대학원생의 연구실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과 다양한 지원책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대학원생들 역시 학회 학술활동 참여나 학술지에 논문 게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가 부쩍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학원생들의 학회 참여는 학회의 그 어느 주체들보다도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이러한 상황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대학원생들의 학회 참여를 이끌어 내고 대학원생들의 학회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학회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위원회의 설치입니다. 한국교육학회의 경우, 대학원생들의 학회 참여와 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역시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대학원생들의 학술 및 학회활동을 고무시킬 수 있는 학생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학회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대학원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춘계 또는 추계학술대회에서 박사학위논문이나 자유주제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뿐입니다. 발표자/토론자/사회자의 형식을 갖춘 대학원생 학술대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기존의 정기학술대회의 특별세션의 형식으로 대학원생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많은 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원생의 대표로 이 글을 쓰

게 되었지만, 그 모든 대학원생의 바램들을 이 짧은 글에 모두 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생위원회가 그러한 대학원생들의 바램들을 실현해 주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대학원생들도 교육행정학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체로 인식해 주시고, 학회에서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이는 대학원생들이 앞으로 교육행정학회를 이끌어 나갈 학자들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리고 학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회에 바란다 |

교육전문직의 입장에서...

김범규(부산교육청 장학사)

교육행정학은 궁극적으로 학교를 위한 학문이다. 학교 변화를 선도하고 학교의 효율성을 높여서 학교 교육의 정당성과 미래지향성을 창출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육행정학의 주된 연구대상은 학교였다. 즉, 모든 교육정책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단위기관으로서의 학교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현상이며 논리적으로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그러나 교육정책과정의 거시적 흐름에서 보면 교육행정학의 연구대상을 정책의 최종 귀결점으로서의 학교에만 국한 또는 집중하는 것은 학교의 선행기관의 역할을 적절하게 규명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의 변화를 바람직하게 이끌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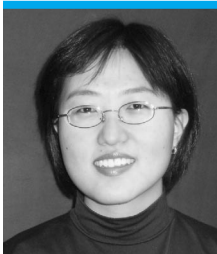
교육정책과정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학교에 선행하는 기관은 교육청, 교육부 등의 교육행정기관이 될 것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를 지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교육을 실제 경험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 소속되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책임지는 교육전문직은 교육행정의 실질적 주체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전문직은 교육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행정학의 관심도 단위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교육행정학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조직과 역할, 그 구성원들인 교육전문직에 대하여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학교교육정책을 수립하여 학교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는 학교의 선행기관으로서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관심은 교육행정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며 교육행정학(회)이 다음과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첫째, 교육행정학이 교육부나 교육청의 기구와 조직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학교조직에 대한 연구가 왕성한 것에 비하여 교육부나 교육청 조직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교육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능력 강화, 학교교육 지원 업무의 효율화 등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체제,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인구와 여건 등 지역실정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급별 규모와 배치 기준 등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교육전문직의 선발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교육부나 각 시·도 교육청은 나름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전문직을 선발·충원하고 있으나, 교육전문직에 부여된 임무와 역할 수행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그에 따른 선발시험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적재의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전문직의 역할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그 역할과 기능, 지위에 맞는 충원 방법 등이 연구되어 합리적인 기준과 타당한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셋째, 교육부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의 인식, 의식, 태도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학교 교사의 의식, 인식, 사회적 태도 등에 대하여서는 다각적 연구가 이루어져 교사문화, 학교조직문화라고 일컬어질 만큼의 하나의 연구영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이나 교육행정기관의 문화 등에 대하여서는 학문적 차원의 연구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문화와 조직풍토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기초한 의사결정과 조직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것은 교육전문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교육행정조직에 내재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학이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전문직의 조직문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의 폭을 넓혀 보기를 기대한다.



Ⅰ 학회에 바란다 Ⅰ

현직교사들의 학회 참여 기회의 확대

이정화(죽전중 교사)

학교에는 여전히 변화의 바람이 거세고 학교와 교사는 변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산재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몸담은 교직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감을 잃고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요구들에 대응하기만 해도 바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우리 교사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들로 해서 일어나는 바람결을 따라 단지 누워 버리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대처하기에는 교사들에게 교직의 윤리적 책임이 너무 무겁다.

사실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저런 현상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화시키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정당한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어떤 행동 방향을 마련해 나가는 일은 교사 집단 홀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한국교육행정학회와 같은 학자 집단이 학교교육을 위해 해 주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교사들은 학자들이 하는 연구나 학술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변화의 요구와 그 방향에 대해서, 또는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한 제반의 노력들이 어떠한 논리들에서 비롯되었는지 등에 대해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자들에게는 그들 연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서를 교사들이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연구의 성과를 교육의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실천적 역할을 교사들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학술활동 참여는 매우 의의 있는 일로 다가올 것이다. 교육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학교 현장을 떠나서는 공허한 이론의 외침이 되기 쉽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학술 활동에 현직 교사들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회에 참석해 보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학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 성과가 학교 현장과 깊이 연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들로 보여 지기도 하는데 학회의 학술활동이 학교 현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장 교사들에게 열어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학교교육과 관련한 주제의 논의일 경우에도 저명한 학자들의 원론 중심의 발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중 이러한 주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토론의 장에서나마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이 현직교사들을 토론자로 지정하는 등의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사들이 학회에 참석하여 어떤 주제의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공론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의 경험에 기초한 그들의 의견이 일정 부분은 학술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직 교사들의 학회 참여가 용이하도록 토요휴업일에 학회를 개최한다든지, 현재 교육행정전공의 석·박사과정에 있지 않은 일반 현장교원들도 교육행정학회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호가 넓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회가 학교 현장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학술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로써 현직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보다 현장접근적인 연구들을 학회지나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소개하여 공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보다 공론화시키고 학자들의 연구에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학회 홈페이지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논의는 학술대회의 주제들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현장 진영과 학문 진영의 활발한 의견 교환과 공유를 통해 연구의 주제와 논의를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학자들의 노력이 완성되는 곳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에서라고 생각한다. 거창한 이론적 논의와 견고한 논리적 무장에 의한 주장들도 결국 현장과 괴리되어서는 그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 교육학, 특히 교육행정학의 연구의 많은 부분은 학교교육 현장의 현상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 연구의 성과도 현장에서 그 설득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학술활동에서의 학자와 교사들의 연대는 더욱 중요한 일로 여겨지며, 학회는 이러한 연대를 유도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중요한 장으로써 기능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학회 활동 안내

2007년 학술활동

♣ 2007년도 제1차 교육정책포럼

- * 주제 : 지방교육자치의 실험: 전망과 과제
- * 일시 : 2007년 3월 9일(금) 14:30
-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 * 후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 내용 : 사회 : 임천순(본회 학술위원장, 세종대)
발표 : 송기창(숙명여대)
토론 : 주삼환(충남대), 이기우(인하대), 조홍순(한국교총)
김진성(서울시의원), 김장중(인간교육실험학부모연대)

♣ 제143차 학술대회(준계학술대회)

- * 주제 : 한국의 교육 거버넌스와 권한 배분
- * 일시 : 2007년 4월 27일(금) 13:20
-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컨퍼런스룸
- * 내용 : 사회: 임천순(본회 학술위원장, 세종대)
[기조발표] 한국의 교육 거버넌스와 권한 배분 / 서정화(홍익대)
1. 교육 거버넌스: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
발표자: 주삼환(충남대) 토론자: 신재철(전남대) · 김용일(해양대)
2. 교육 거버넌스: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
발표자: 허종렬(서울교대) 토론자: 김태완(계명대) · 최충욱(경기대)
3. 교육 거버넌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
발표자: 표시열(고려대) 토론자: 고전(대구교대) · 송병춘(변호사)
4. 교육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발표자: 조동섭(경인교대) 토론자: 진동섭(서울대) · 엄기형(한국교원대)
종합토론 [사회: 이종재(서울대)]

♣ 제144차 학술대회

- * 주제 : 교육행정 연구의 최신 동향
- * 일시 : 2007년 5월 19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 내용 : 사회 : 조동섭(본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경인교대)

1. 사립대학 학생수와 비용 및 수익의 관계 분석

/ 김수경(숙명여대 여성HRD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 교사의 학습기회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송경오(서울대 BK 21 박사후 연구원)

3. 학교혁신과 형식주의 / 김인희(한국교원대 교수)

4.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정부-대학간의 인식차에 관한 연구

/ 신정철(서울대 교수) · 김명진(서울대 박사과정) · 박환보(서울대 석사과정)

5. 지식경영: 이론적 쟁점과 발전방향 탐색 / 박선형(조선대 교수)

♣ 2007년도 제2차 교육정책포럼

* 주제 :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권

* 일시 : 2007년 6월 29일(금) 14:30-17:30

*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내용 : 사회 : 정일환(본회 정책연구위원장, 대구가톨릭대)

발표 : 김태완(계명대)

토론 : 강무섭(강남대), 김동석(한남대), 오대영(중앙일보 논설위원), 최봉섭(비컨 리서치)

♣ 제145차 학술대회

* 주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 활성화

* 일시 : 2007년 8월 25일(토) 13:00-18:00

* 장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층 세미나실

* 주최 : 한국교육행정학회

* 주관 :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 후원 : 충북대학교

* 내용 : 사회 : 임연기(공주대)

[기조발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의 활성화 방향 / 정영수(본회 회장, 충북대)

1: 지방교육활성화의 논리와 접근방법 / 정일환(대구가톨릭대)

2: 지방교육의 활성화 정책 진단 / 나민주(충북대) · 진동섭(서울대)

3: 지방교육의 현황과 요구분석 / 김병찬(경희대) · 양성관(건국대) · 김정희(대구가톨릭대)

4: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분석 / 조석훈(청주교대)

5: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모형과 정책과제 / 김인희(한국교원대)

지정토론 : 박재운(한국교육개발원), 하봉운(경기대), 조동섭(경인교대)

최준렬(우석대), 김효겸(충청북도부교육감)

종합토론 [사회: 주삼환(충남대)]

♣ 제146차 학술대회

* 주제 : 교육행정 연구의 최신 동향

* 일시 : 2007. 11. 3(토) 09:00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B

* 내용 : 사회: 김성렬(서원대)

1. 우수 학교장의 지도성 역량 분석 / 주현준(서울대)
2.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재정의 형평성 연구 / 우명숙(한양대)
3. 단위학교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이상기(창원대)
4. 학교 조직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수용 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 박정주(고려대)
5. 교장의 직무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 / 정일화(대전이문고)
6. 학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의 학교조직몰입과의 관계연구 / 김철구 · 강경석(인하대)
7.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성과 분석 / 공동배 · 김성열(경남대)
8. 교육열에 관한 교육정책적 관심 / 이종각(강원대)

♣ 국제학술대회

* 주제 :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 일시 : 2007년 10월 6일(토) 09:00

* 장소 : 고려대학교 4 · 18기념관

* 주최 : 한국교육행정학회, 일본교육행정학회, 고려대학교 BK21 교육학국제화사업단

* 주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고려대학교 BK21 교육학국제화사업단

* 내용 : 사회: 김이경(KEDI), 고전(제주교대)

[기조강연] “시장화 관점에서 본 한국고등교육의 전개과정” / 이종재 (서울대)

[주제발표]

주제 I : 미국의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발표: Pedro Reyes (Univ. of Texas, USA) 토론: 임천순 (세종대)

주제 II : 중국의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발표: Zuoyu Zhou (Beijing Normal Univ., CHINA) 토론: 최영표 (동신대)

주제 III : 한국의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발표: 신현석 (고려대) 토론: Sano, Michio (Shikoku Univ., JAPAN)

주제 IV : 일본의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발표: Ikeda, Terumasa (Maijo Univ., JAPAN) 토론: 강병운 (대교협)

[주제별 쟁점 토론]

그룹 1: 일본 (좌장: Hattori, Mina, JAPAN)

그룹 2: 중국 (좌장: 최영표, 동신대)

그룹 3: 미국 (좌장: 김이경, KEDI)

♣ 제35차 연차학술대회(제147회 학술대회)

* 주제 : 한국교육행정학의 과거, 현재, 미래

* 일시 : 2007년 12월 8일(토) 13:00

- * 장소 :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101호
- * 내용 : 사회: 김명수(교원대)
 - [기조강연] 한국교육행정학의 반성과 좌표 / 최희선(중부대)
 - [주제발표] 한국교육행정학의 과거: 회고와 반성 / 강영삼(국민대)
 - 한국교육행정학의 현재: 역할과 위상 / 서정화(홍익대)
 - 한국교육행정학의 미래: 도전과 과업 / 임천순(세종대)
 - [지정토론] 이현청(호남대), 강무섭(강남대), 이종각(교육혁신위원회),
 - 진동섭(서울대), 최충옥(경기대), 최정윤(KEDI)
 - [종합토론] 사회: 이종재(서울대)

연구활동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활성화 방안

- * 지원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 연구자: 정영수, 정일환, 진동섭, 박재운, 조석훈, 나민주, 김병찬, 양성관, 김정희
- * 연구기간: 2007. 3~2007. 12
- * 연구비: 5,000만원

♣ 해외 대학입시제도 실태조사 연구

- * 지원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연구자: 정영수, 정일환, 최영표, 윤종혁, 박선형, 양성관
- * 연구기간: 2007. 3~2007. 5
- * 연구비: 1,400만원

♣ 국회 교육정책진단 연구과제

- * 지원기관: 주호영 국회의원
- * 연구자: 정영수, 이일용, 정일환, 천세영, 김병주, 김병찬
- * 연구기간: 2007. 8~2007. 9
- * 연구비: 2,000만원

각종 회의 개최 현황

♣ 이사회 개최

- [제1차] * 일시 : 2007년 4월 27일(금) 17:50
 -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컨퍼런스룸
 - * 안건 : 학회 윤리헌장 선포,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학회지 편집 · 발간 규정 개정
- [제2차] * 일시 : 2007년 8월 25일(토) 18:00
 - * 장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 * 안건 : 후반기 사업계획 수립

- [제3차] * 일시: 2007년 12월 1일(토) 11:30
 * 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회의실
 * 안건: 2007년도 사업 결산 및 2008년도 사업 계획 의결

♣ 정기총회 개최

- * 일시: 2007년 12월 8일(토) 15:10-15:30
 * 장소: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101호
 * 안건: 2007년도 사업 결산 및 2008년도 사업계획안 의결

♣ 임시총회 개최

- * 일시: 2007년 4월 27일(금) 17:50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컨퍼런스룸
 * 안건: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 선임, 재정확보방안, 윤리현장 선포,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운영위원회 개최

- [제1차] * 일시: 2007년 1월 18일(목) 08:00
 * 장소: 서울 팔래스 호텔
 * 안건: 2007년 사업계획 수립 및 분과위원 선정
 [제2차] * 일시: 2007년 9월 8일(토) 10:00-12:00
 *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안건: 1. 제3차 교육정책포럼 및 연차학술대회 기획
 2.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 기획
 3. 부회장 선출 일정 결정

♣ 기획위원회

- [제1차] * 일시: 2007년 7월 14일(토) 12: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 안건: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계획 수립, 전문서 개정판 발간 계획 수립
 [제2차] * 일시: 2007년 10월 20일(토) 08: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 안건: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계획 수립

♣ 학회 창립 제4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 * 일시: 2007년 10월 20일(토) 08: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 안건: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계획 수립

♣ 학술위원회 개최

- [제1차] * 일시 : 2007년 2월 9일(금) 11:00
* 장소 : 서울교대 본관 7층 대회의실
* 안건 : 2007년 상반기 학술활동 계획 수립
- [제2차] * 일시 : 2007년 4월 7일(토) 11:00
*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2회의실
* 안건 : 제143차, 제144차 학술대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제2차 교육정책포럼 개최 계획 수립
- [제3차] * 일시 : 2007년 9월 15일(토) 11:00
* 장소 : 교육문화회관
* 안건 : 제 35차 연차대회(제145차 학술대회) 개최 계획 수립

♣ 편집위원회 개최

- [제1차] * 일시 : 2007년 2월 9일(금) 11:00
* 장소 : 서울교대 본관 7층 소회의실
* 안건 : 2007년 학술지 발간계획 수립 및 발간규정 정비
- [제2차] * 일시 : 2007년 4월 27일(금) 17:5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컨퍼런스룸
* 안건 : 학회지 편집 · 발간 규정 개정

♣ 정책연구위원회

- * 연구과제별로 수시로 연구협의회 개최함
- * 연구과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활성화 방안'
'해외 대학입시제도 실태조사'
'국회 교육정책진단 연구과제'

♣ 국제학술위원회

- * 일시 : 2007년 6월 2일(토) 11:00
-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 안건 : 국제학술대회 개최 계획 수립

♣ 학술편찬위원회

- * 일시 : 2007년 8월 25일(토) 18:00
- * 장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 * 안건 : 학회 학술전문서 발간계획 수립

♣ 재정·기금위원회

- * 일시 : 2007년 11월 2일(금) 17:30
-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 안건 :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재정 확보 방안

♣ 부회장선출위원회

- [제1차] * 일시: 2007년 9월 8일(토) 10:00-12:00
 *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안건: 부회장 선출 일정 계획 수립
- [제2차] * 일시: 2007년 11월 9일(금) 12: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 안건: 부회장 후보 결정
- [제3차] * 일시: 2007년 11월 28일(수) 17:00
 *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회의실
 * 안건: 우편투표 용지 개표 및 부회장 결정

♣ 윤리위원회

- * 일시 : 2007년 4월 27일(금) 17:5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컨퍼런스룸
 * 안건 : 학회 윤리헌장 선포,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학술지발간

권 · 호		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접수(편)	게재(편)	게재율(%)
25권 (2007년)	1호	2월 28일	4월 30일	23	11	47.8
	2호	5월 31일	7월 31일	28	17	60.7
	3호	8월 31일	10월 31일	31	12	38.7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34	-	-

뉴스레터 발간

제91호(2007. 2. 28)

주론-정영수(본회 회장, 충북대), 논단-진동섭(서울대), 이광현(KEDI)

제92호(2007. 7. 31)

주론-주삼환(충남대), 논단-양성관(건국대)

제93호(2007. 10. 31)

주론-임연기(공주대), 정연한(교육혁신위원회)

제94호(2007. 12. 8 발간예정,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호)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 국 교 육 행 정 학 회

교육행정학 전문서 발간

- 학술전문서 발간 출판사: 교육과학사
- 집필완료 및 발간 계획: 집필완료(2008년 6월), 발간예정일: 2008년 8월 말
- 전문서명 및 집필위원: 총 11권, 집필위원 총 72명

저서명 (팀별 조정가능)	총괄 : 학술편찬위원장 이윤식 (인천대) 집필진 총 72명	
① 교육정책론	<집필책임자> 정일환(대구가톨릭대)	김동석(한남대), 김병주(영남대), 김이경(KEDI), 김재웅(서강대), 양성관(건대), 주철안(부산대), 홍후조(고려대) (총8명)
② 비교교육제도론	<집필책임자> 이일용(중앙대)	김성렬(경남대), 김갑성(KEDI), 백정하(대교협), 이차영(한서대), 최영표(동신대), (총6명)
③ 교육조직론	<집필책임자> 노종희(한양대)	김성렬(서원대), 박삼철(단대), 박종필(제주대), 성병창(부산대), 유길한(진주교대), 허병기(교원대) (총7명)
④ 교육인사행정론	<집필책임자> 서정화(홍익대)	박세훈(전북대), 박영숙(KEDI), 송광용(서울교대), 조동섭(경인교대), 전제상(경주대), 황준성(한국교총 연구소) (총7명)
⑤ 고등교육행정론	<집필책임자> 임천순(세종대)	반상진(전북대), 변기용(정책개혁위원회), 신정철(서울대), 신현석(고려대), 조영하(경희대), 최정윤(KEDI) (총7명)
⑥ 장학론	<집필책임자> 이윤식(인천대)	김정현(원광대), 김도기(교원대), 신재흡(서일대), 장한기(부경대), 진동섭(서울대) (총6명)
⑦ 교육재정론	<집필책임자> 김명수(교원대)	공은배(KEDI), 김민희(중부대), 나민주(충북대), 송기창(숙대), 천세영(충남대), 최준열(공주대) (총7명)
⑧ 교육시설행정론	<집필책임자> 김영철(KEDI)	김남순(조선대), 이재림(교원대), 조진일(KEDI), 한은숙(청주대) (총5명)
⑨ 교육법론	<집필책임자> 박재운(KEDI)	강인수(수원대), 고전(대구교대), 권두승(명지대), 김용(청주교대), 허종렬(서울교대) (총6명)
⑩ 학교학급경영론	<집필책임자> 박종렬(경북대)	권기욱(대구대), 박남기(광주교대), 신상명(경북대), 임연기(공주대), 정금현(교육인적자원연수원), 정수현(서울교대) (총7명)
⑪ 교육행정연구법	<집필책임자> 정영수(충북대)	김병찬(경희대), 박선형(조선대), 박소영(KEDI), 배호순(서울여자대), 한유경(이화여대) (총6명)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 일시: 2007년 12월 8일(토) 17:30-20:30

*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본회의실

시간	프로그램
13:00-17:30	학회 역사 자료 전시회(학술대회장 앞)
17:30-18:00	등록 및 입장
18:00-18:30	기념식 기념사 축사 회고담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 사회: 김용(사무국장)
18:30-20:30	축하만찬 축배제의 및 케익 커팅 영상물 상영 및 식사 축하공연 사회: 송기창(숙명여대) · 박영숙(KEDI)
20:30	폐회식 및 기념품 증정

학회 로고 선정

제35차 연차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중 의견 수렴 후 결정

2007년도 결산 보고

1. 2007년 재정개요

(2007. 12. 5 현재, 단위:원)

회계구분	항목	2007년 예산	2007년 결산	비고
일반회계	수입	94,852,596	94,104,058	
	지출	94,852,596	94,104,058	
기금회계	수입	143,242,277	142,867,611	세(15.4%) 후 금액
연구비회계	수입	60,000,000	84,000,000	KEDI 50,000,000원
	지출	60,000,000	84,000,000	대교협 14,000,000원 국회 20,000,000원

2. 일반회계 예산

가) 수입

(2007.12.5 현재, 단위:원)

항 목	2007년 예산	2007년 결산	비고
1. 이월금	11,742,596	15,049,326	
2. 회비	23,100,000	23,830,000	
• 입회비	1,500,000	840,000	
• 2007년도 회비	20,000,000	22,860,000	
• 평생회비	1,600,000	0	
• 이사회비		130,000	
3. 수익자부담경비	26,500,000	22,360,000	
• 논문심사 및 게재료	24,600,000	20,270,000	
• 학술대회 참가비	1,900,000	2,090,000	
• 한·일 세미나참가비	0	0	
4. 보조금 및 찬조금	23,000,000	23,668,860	
• 학술대회 지원금	15,000,000	0	
• 출판사 찬조금 ²⁾	23,000,000	23,668,860	
• 기관찬조금 ³⁾	1,500,000	8,300,000	
• 개인찬조금	2,000,000	8,150,000	

2) 신성인쇄상사 무료 인쇄-2,700,000원(뉴스레터 600,000원×4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초청장 300,000원), 교육과학사 무료 인쇄-제143차 학술대회 자료집 1,852,000원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차 포럼 찬조금): 500,000원, 충북대학교(145차 학술대회 찬조금): 500,000원,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후원금-교육과학사: 3,000,000원, 한국교직원공제회: 2,000,000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00,000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1,000,000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00,000원

항 목	2007년 예산	2007년 결산	비고
• 교보문고 수익금	2,500,000	1,893,260	
• 전문서발간 인세	0	773,600	
5. 연구비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⁴⁾	10,000,000	8,400,000	
6. 기타수입	510,000	795,872	
• 예금이자	10,000	15,362	
• 간행물판매수입	500,000	0	
• 초과인출분 반납	0	780,510	
총 계	94,852,596	94,104,058	

나) 지출

(2007.12.5 현재, 단위:원)

항 목	2007년 예산	2007년 결산	비고
1. 인건비	7,200,000	7,200,000	
• 사무국장 수당	2,400,000	2,400,000	
• 간사 수당	4,800,000	4,800,000	
2. 한일공동세미나(한국)	6,000,000	3,447,810	
3. 여비	600,000	372,783	
4. 인쇄비	31,000,000	20,543,680	
• 학회지	22,000,000	10,787,700	
• 학술대회 발표집 ⁵⁾	3,500,000	7,228,580	
• 뉴스레터 ⁶⁾	1,000,000	2,400,000	
• 학회봉투제작	500,000	0	
• 학회요람	3,000,000	0	
• 자료제작 및 복사	500,000	127,400	
5. 사업비	30,650,000	27,866,150	
• 발표, 사회 수당	8,500,000	9,290,000	
• 행사준비	4,000,000	8,763,860	
• 회의비	2,000,000	1,998,290	
• 기념패	650,000	524,000	
• 논문심사 의뢰	13,000,000	7,290,000	
6. 수용비	12,250,000	9,097,770	
• 사무용품	500,000	283,000	
• 공공요금(통신·우편)	6,000,000	2,924,770	
• 용역비	400,000	1,140,00	

4) KEDI 연구과제: 6,000,000원, 대교협 연구과제: 1,400,000원, 국회정책진단과제: 1,000,000원

5) 교육과학사: 1,852,000원, 신성인쇄상사: 300,000원

6) 신성인쇄상사 무료 제작

항 목	2007년 예산	2007년 결산	비고
• 홈페이지유지및관리	2,500,000	2,400,000	
• 감사패 제작	400,000	240,000	
• 송금수수료	200,000	0	
•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준비비	0	2,000,000	
• 기타	750,000	110,000	
7.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1,000,000	999,240	
8. 차년도 이월금 ⁷⁾	7,152,596	24,576,625	
총 계	94,852,596	94,104,058	

※ 12월 중 지출예정

-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준비비: 약 15,000,000원
- 요람발간비: 약 3,000,000원
- 제35차 연차학술대회 경비: 약 3,500,000원
- 논문집 25권 2호 우편료 및 25권 4호 발간비: 약 7,000,000원
- 기타: 약 500,000원

3. 연구비회계 예산

가) 수입

(2007.12.5 현재, 단위:원)

항 목	2007년 예산	2007년 결산	비고
1. 연구과제비	60,000,000	84,000,000	KEDI 과제 50,000,000원 대교협 과제 14,000,000원 국회 과제 20,000,000원
총 계	60,000,000	84,000,000	

나) 지출

(2007.12.5 현재, 단위:원)

항 목	2007년 예산	2007년 결산	비고
1. 연구과제수행비	50,000,000	75,600,000	KEDI 과제: 44,000,000원 대교협 과제: 12,600,000원 국회 과제: 19,000,000원
2. 일반회계로의 전출	10,000,000	8,400,000	KEDI 과제: 6,000,000원 대교협 과제: 1,400,000원 국회 과제: 1,000,000원
총 계	60,000,000	84,000,000	

4. 기금회계 예산

가) 수입

(2007.12.5 현재, 단위:원)

항 목	2007년 예산	2007년 결산	비고
1. 이월금	137,732,959	136,847,420	
2. 이자수익	5,509,318	6,020,191	세(15.4%) 후 금액
3. 개인발전기금	0	0	
총 계	143,242,277	142,867,611	

7) 현재 통장 잔액, 12월 중 지출예정액을 감안하면 실제 차년도 이월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공지사항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 게재료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3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 입금계좌 : 농협 304-02-540381 (예금주: 정영수)
- * 원고 작성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논문접수→접수안내→양식다운받기)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지 참조)

2007년 신규가입 및 연회비 납부 현황

◇ 신규가입 (2007년 12월 5일 현재)

강보길, 강석봉, 권혜정, 김근영, 김금순, 김나영, 김대유, 김미정, 김미향, 김보람, 김수경, 김승현, 김용훈, 김은희, 김인희, 김철구, 김현진, 김혜진, 나임, 민석홍, 박귀성, 박금화, 박수호, 박정주, 박지은, 박현석, 박흥희, 백을희, 서정혜, 서효현, 석성환, 설현택, 송경오, 신동한, 신명호, 신원학, 신정철, 신현주, 심재영, 안지혜, 양재길, 오세희, 오승희, 이상기, 유수정, 윤영임, 윤영주, 윤재열, 이관춘, 이만희, 이미석, 이분삼, 이성옥, 이수정, 이수진, 이승복, 이유경, 이인희, 이재기, 이정화, 이제봉, 이희숙, 임임선, 임태조, 장석환, 장선화, 장효경, 장효민, 전상훈, 정명자, 정선일, 정연한, 정영선, 정일화, 정재환, 정해인, 조혜진, 최수석, 허상철, 홍미정, 홍여찬

◇ 연회비 납부 현황 (2007년 12월 5일 현재)

[일반회원]

강경석, 강경수, 강보길, 강상문, 강석봉, 강순화, 강영삼, 강영택, 강원근, 강정삼, 고장완, 고재학, 고전, 고창규, 공동배, 공은배, 권기욱, 권진홍, 권현정, 기진서, 김경희, 김나영, 김대유, 김덕근, 김덕희, 김도기, 김동석, 김미정, 김미향, 김민희, 김범규, 김병주, 김병찬, 김보람, 김보영, 김상길, 김성규(성남중앙초교), 김성규(제주관광대), 김성기, 김성렬, 김세호, 김송득, 김수경, 김수영, 김승현, 김승호, 김신복, 김영철, 김옥예, 김용, 김용갑, 김용정, 김용훈, 김은희, 김이경, 김인희(교원대), 김인희(논곡초교, 3만원 미납),

김장래, 김장중, 김재덕, 김재웅, 김정순, 김정희, 김주철, 김지연, 김지은, 김철구, 김태조, 김태환,
 김현진(교육부), 김현진(국민대), 김효겸, 김희규, 나민주, 나임, 남기운, 남수경, 노송성, 노일숙, 노종희,
 노희정, 류운석, 류재범, 류혜숙, 민석홍(3만원 미납), 박광태, 박기용, 박삼철, 박상완, 박선미, 박선형,
 박성식, 박세훈, 박소영, 박소화, 박애리, 박영숙(KEDI), 박우진, 박운정, 박재윤, 박정주, 박정희, 박종필,
 박주영, 박준형, 박지은, 박진형, 박진희, 박정원, 박현석, 박호근, 박흥희, 백일우, 백정하, 변기용, 서정혜,
 서정화, 서효연, 석성환, 설현택, 성기옥, 손경애, 손점대, 손희권, 송경오, 송광용, 송기창, 송선영, 송영식,
 신동한, 신원학, 신윤섭, 신재철, 신재흡, 신정철, 신증식, 신철순, 신현석, 심연미, 심영보, 심재영, 심태은,
 안세근, 양성관, 양재길, 양정호, 염민호, 오대수, 오범호, 오세희, 오승희, 오영재, 옥장흠, 우명숙, 이상기,
 우정남, 원순식, 원영상, 원용길, 원유옥, 유경근, 유길한, 유봉자, 유성상, 유수정, 유진봉, 유평수, 유현숙,
 윤길준, 윤영임, 윤영주, 윤재열, 윤정일, 윤종건, 윤홍주, 이강, 이경숙, 이경철, 이관춘, 이광숙, 이광현,
 이기석, 이기용, 이기우, 이기호, 이낙중, 이남호, 이두영, 이만희, 이명균, 이미석, 이범수, 이봉애, 이분삼,
 이상미, 이상인, 이상철(부산전자공고), 이석열, 이수정(KEDI), 이승복, 이승호, 이윤식, 이인희, 이일용,
 이재기, 이재덕, 이재영, 이재일(3만원 미납), 이재호, 이정로, 이정미, 이정선, 이정진, 이정화(죽전중),
 이재봉, 이종각, 이지영, 이태상, 이학현, 이현덕, 이혜숙(신서중), 이희숙, 임연기, 임임선(3만원 미납),
 임준희, 임태조, 임형렬, 임혜경, 장명원, 장석환, 장효경, 전성효, 전재근, 전제상, 정금현, 정남숙, 정동욱
 (2만원 미납), 정명자, 정모진, 정선일, 정성수, 정수현, 정연한, 정영선, 정우영, 정일화, 정일환, 정재균,
 정재선, 정재환, 정지선, 정진환, 정태성, 정희옥, 조남두, 조동섭, 조석훈, 조선일, 조성만, 조영기, 조영진,
 조영하, 조재규, 조홍순, 주도연, 주삼환, 주현준, 주화정, 진동섭, 채재은, 천미경, 천세영, 최경희, 최기우,
 최미리, 최영표, 최정윤, 최정희, 최준규, 최준렬, 최충옥, 최희선, 표시열, 하광호, 하봉운, 한광를, 한신일,
 한유경, 한은숙, 함석동, 허상철, 홍광식, 홍미정, 홍상현, 홍성길, 홍성훈, 홍여찬, 홍창남, 황보영란,
 황선성, 황신택, 황영남, 황윤한, 황준성

[학생회원]

가신현, 구자원, 권춘기, 권혜정, 김근영, 김금순, 김선희, 김세령, 김양현, 김옥경, 김용관, 김지혜, 김향숙,
 김혁동, 김현진(750701), 김형돈, 김혜진, 문선향, 민병조, 박귀성(1만원 미납), 박금화, 박동후, 박영상,
 송경원, 신학원, 신현주, 안지혜, 오형문, 유은수, 유희정, 이미화, 이선옥, 이승호, 이승희, 이우경, 이은진,
 이점호, 이정애, 이진원, 이진철, 임은영, 장선화, 장은미, 장효민, 전상훈, 정정하, 정해인, 조분순(1만원 미
 납), 조혜진, 최만, 최선희, 최수석, 허은정, 홍철희

[기관회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도서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경인교육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과천도서관, 관동대학교 중앙도서관,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교육자료실, 국회도서관, 남서울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부경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서원대학교 도서관, 안양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중부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평택대학교 도서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위 기간 내 회원님의 연회비 납부 사실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2007년 현재까지 주소나 기타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이 많으나 학회 사무국에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아 우편물 반송 및 회원연락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숫자).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ssea.or.kr)에 접속해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회비 변경 안내

2007년 부터 :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2006년 까지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 학생회원은 직업이 없는 전일제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한합니다.

입금방법 : 온라인 입금 (농협 304-12-343277 예금주 : 정영수)

※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납부하신 당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361-712)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35 청주교대 본관 327호
- E-Mail : kssea1(숫자1)@hanmail.net
- 전화번호 : 043-299-0696, 0809
- Fax : 043-299-0697
- 회 장 : 정영수 (043-261-2657, 010-5586-1276)
- 부회장 : 김명수 (043-230-3433, 010-3337-6159)
- 사무국 : 김 용 사무국장(043-299-0809, 019-9759-4132)
박영상 총무간사(043-299-0696, 016-436-8141)
신은호 편집간사(016-615-1083)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6일 18시 현재)

- [개인] 1,000,000원 - 정영수
500,000원 - 김명수
300,000원 - 김성열(경남대)
200,000원 - 강영삼, 공은배, 김성렬(서원대), 김인희, 박영숙(KEDI), 박종렬, 서정화, 신극범, 신철순, 유현숙, 이윤식, 이일용, 이종재, 정일환, 정태범, 천세영, 최준규, 최충옥
100,000원 - 강병운, 강인수, 곽영우, 김명한, 김병찬, 김성규, 김신복, 김영식, 김 용, 김운태, 김현진, 남정걸, 노종희, 박남기, 박선형, 박세훈, 박재운, 송기창, 송미섭, 신재철, 신정철, 신중식, 양성관, 우정남, 유평수, 윤정일, 이형행, 전제상, 조홍순, 주삼환, 진동섭, 최준렬, 한경수, 홍창남
50,000원 - 이석열, 이인희, 정진환

- [기관] 교육과학사 3,000,000원
한국교직원공제회 2,000,000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00,000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1,000,000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00,000원

모금 총액: 16,250,000원

학회 창립 제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 원 장 : 진동섭(서울대)

부위원장 : 송기창(숙명여대)

위 원 : 박영숙(KEDI), 박재운(KEDI), 신현석(고려대), 엄상현(교육인적자원부), 이윤식(인천대), 이일용(중앙대), 임연기(공주대), 정일환(대구가톨릭대), 조동섭(경인교대), 주철안(부산대), 허병기(교원대)

간 사 : 허은정(서울대대학원)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해 주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대학원생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은정, 김정현, 김효정, 이재덕, 신철균 [서울대 교육학과 교육행정 박사과정]
이승호, 이혜나, 위은주, 박은경, 이주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육행정 석사과정]